

권두 인터뷰

방인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기획 대담

“오직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평화 발언대

민간통일활동가들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민주화해

116 vol
2022.05+06

ISSN 2288-2782



민족화해

12



32



58



06



60



36



52

민족화해 2022년 05+06월호(격월간, 통권 116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인 이종걸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박인휘, 이승현, 전영선, 정구연,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Cover Story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다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었다. 지난 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5년을 기대한다. 민화협은 늘 변함없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연합

-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새 정부 출범에 붙여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라”
- 04 포토 에세이 | 조천현
감자 심는 사람들
- 06 권두 인터뷰 | 염규현·김도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방인성 회장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함께 할 것
- 12 기획 대담 | 문예찬
“오직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18 평화 발언대 | 장지혜·전이슬·성정현
민간통일활동가들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 22 이슈 앤 포커스 | 박용한
도전받는 남북관계, 신정부의 선택은
- 26 우리의 역사 | 이동연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투탄 의거의 주인공
나석주 의사
- 28 청년칼럼
1.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모습 | 이용진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 | 전병화
- 32 기자의 눈 | 김아영
외교·통일분야 정치 실세 포진
尹정부의 ‘네모난 동그라미’?
-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태우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김병기 위원장
독립운동사(史) 반추한 미래비전 ‘통일’ 실천해야
- 40 문화 모니터
문학 속 통일미래 ㉮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 | 이상현
영화 속 북한 이야기 ㉺ | 전영선
- 50 특별기고 | 박선영
비시에서 만난 한국전쟁사 전문가 장 플르티에
- 52 민족화해 네트워크
- 62 새로운 시선② | 박수현
돌봄 사회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
남북한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 66 평화를 만나는 기행 | 이영동
- 70 통일 웹툰
- 72 궁금한 책
- 74 독자의 글 | 김동석
- 76 민화협 사서함



새 정부 출범에 붙여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라”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의 시작은 변화가 많고, 특히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그 변화의 폭은 매우 클 것이다. 국정정의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통일-외교-국방 분야는 정당 간 시각(공약)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거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별의별 공약이 남발되고 야당은 매우 극단적 이슈까지 제기한다. 선제타격 주장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이는 보수층 표를 의식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인수위 시절 미 언론 인터뷰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다. 집권 여당이 되면 달라져야 한다. 정부 여당의 결정 하나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존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통일-외교국방 분야가 더욱 그렇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결단코 선한 전쟁은 없다’ 등의 경구는 그래서 언제나 진리다.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우리는 전쟁의 참혹상에 치를 떨면서 서방언론 관점이나 아니냐 논란만 있지 진정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

냐에는 소홀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은 새 정부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첫 번째, 남의 나라 침략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미국(나토)의 동방정책이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설치 전략이건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부르는 우크라이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한 우리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 무수한 외적에 맞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정치지도자의 무모함이다. 자국의 예민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한 편에 몰입하려 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6·25 직전 이승만의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자’는 무모한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참극을 불러온 경험이 있다. 결단코 이를 반복할 수 없다. 정치지도자는 허풍선 ‘말’이 아닌 주도면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 교훈은 국제정치의 잔혹함이다. 핵보유

국이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에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군사·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각서는 눈앞의 국가이익에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침략했고, 미국은 전면전이 두려워 직접 군사개입을 못하고 있다. 나토와 EU에 가입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던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에너지 봉쇄를 의식해 미온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애절한 호소에도 서방세계는 군수품 재고정리에 몰두할 뿐이다. 차라리 무기가 없어 항복하면 그나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멈추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네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안보동맹보다 국가이익이 앞선다는 것이다. 앞서 부다페스트 각서도 휴지에 불과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4자 안보대화, 이른바 '쿼드'를 추진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우리의 쿼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쿼드에 가입한 인도는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이다. 아무리 미국이 화를 내도 인도는 꿈쩍 안 한다. 당장 국가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유럽 역사를 보면 무수한 안보동맹, 심지어 결혼동맹마저 이익을 위해 파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우리도 70여년 전 맺은 안보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선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민족, 민족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근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로, 민족주의는 시대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얕은 지식의 어설픈 주장은 통일이 필요치 않다는 억지 논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바탕은 바로 민족갈등이다. 우크라이나는 크게는 같은 슬라브족이지만 갖

은 외세침략으로 언어와 특히 종교가 다른 민족이 혼재돼 있고 그 오랜 갈등의 휘발성에 러시아가 성냥을 그은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 내 오랜 민족갈등을 화해와 통합으로 완화했다면 이런 외세의 침략행위가 가능했을까. 사실 민족갈등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미얀마 등 여타 분쟁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즉 민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요즘에는 과도한 민족주의, 즉 인종주의적 일면까지 엿보이고 있다. 백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유럽에서 환영받지만, 유색 이라크인 난민은 바다에 떠돌다 죽는 참상의 본질이 그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우리 헌법은 침략행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 정치지도자의 무모함, 국제정치의 냉혹함도 경계해야 하고, 또 잊어선 안 된다. 동맹보다 국가이익이 앞선다는 엄연한 사실, 민족, 민족주의는 여전히 위력적이기에 사전 갈등관리, 즉 민족의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요약하면 군사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국가이익이고, 그보다 100배 중요한 것은 민족 간 갈등관리 즉 평화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새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울 것 없다. 대통령께서는 국방부 장관의 '북한은 주적'이라는 말을 참고하시고, '동맹 우선, 쿼드 가입'을 말하는 외교부 장관의 조언을 경청하시고, 마지막 '민족갈등 해결'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따르시면 된다. 그것이 국가가 부담할 비용과 희생이 적은 순서이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

27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감자 심는 사람들

—— 둥굴고 둥굴어 감자를 닮은 얼굴들
뿔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정 많은 가슴을 지닌 사람들
소탈구지 가득 씨감자를 쌓아놓고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린 사람들





방인성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함께 할 것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 주변은 4월부터 한여름처럼 치열하다. 그곳엔 당선자와 인수위 사람들을 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 경찰 차량과 폴리스 라인, 당선자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손팻말, 출범할 새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국정 우려를 표하러 온 시민단체들로 북적인다.

다양한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반노동, 반여성,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도 있는가 하면, 기업 활동과 부동산 재건축에 관련한 규제 완화, 수사지휘권과 공수처 폐지, 임대차 3법 수정 등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도 있다. 사람들은 각양색색의 손편지부터 프린트물을 담은 갈색 서류봉투를 경찰에 건넨다. 지금 시민들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국정 운영에 길을 묻고 있다.

4월 12일 수요일 정오, 인수위와 4km쯤 떨어진 서울 중구 퇴계로 사단법인 하나누리 건물에서 2월 24일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으로 취임한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를 만났다. 방인성 회장은 “북민협이 대정부 활동과 국제사회 연대, 회원단체들의 이익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의 대북교류에 있어 북민협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담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정리 **김도희** 민화협1020통일공감기자단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 북민협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소감과 향후 사업 방향이 궁금하다.

“다른 훌륭한 활동가들이 계심에도 회장직에 선출돼 감사하고 또 책임이 무겁다. 북민협은 북측과 교류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뒷받침해주는 단체다. 지금은 북측과 소통할 남북창구가 막힌 상태라 북측과 접촉할 수 있는 해외동포들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

면 북민협은 북측과 교류를 원하는 국내외 모든 국민의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더불어 대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민간단체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끌어올리고 싶다.”

Q | 그동안 대표로 활동해온 (사)하나누리 소개와 남북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하나누리는 북측과 사회문화 교류를 목표로 활동하는 대북교류사업단체다. 2007년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금강산이 개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방북하게 한 경력도 있고, 하나누리 이사 중에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신 분이 계셨는데,¹ 그분의 도움을 받아 2007년 부산에서 코리아통일 미술전을 개최한 적도 있다. 남북관계 호시절엔 북측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기도 했고, 특별히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민간단체 규모라 국수, 밀가루, 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자부한다. 2009년부터는 1년에 3~4차례씩 나선특구를 방문해 작은 단위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한 ‘자립마을 프로젝트’에 나섰다. 북 지역의 소규모 농장 반장들과 협의해 사업에 나섰다. 협력 단위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농작물 생산량이 상승하고, 농작물



방인성 회장은 대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 간 정보 공유로 민간단체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끌어올리는 북민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설립도 지원받았다.

또 목도리 뜨기 캠페인을 진행해 북측에 목도리를 보내주는 사업을 했다. 직접 손으로 떠서 주는 정성과 진정성을 보고 북측에서 사업을 매우 반겼다. 안타깝게도 목도리 보내기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남북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가족사의 아픔 때문이다. 선친의 고향은 북한 선천이다. 그곳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조부께서 목회자 생활을 하셨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해방 때 출옥성도가 되셨던 조부는 분단 이후 다른 기독교인들이 월남할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남으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집안사가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했고, 대북교류사업에 임하게 했다.

¹ “김대중 하나누리 이사는 지난 7월 최고인 조재진 장로(성터교회)가 가난한 민중미술가들을 지원하면서 모은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남북 미술가들의 작품과 역사를 온몸으로 맞선 민중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로는 소천하기 전 자신이 소장한 민중미술 작품을 평양에서 전시하고 싶었으나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이사가 소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출처: 뉴스앤조이] 남북의 그림이 한자리에, 화합과 통일도 '성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

기독교 신앙, 평화의 복음으로 민족 분단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청년 때부터 해왔다.”

한반도 평화, 민관의 두 날개로 함께 만들어야

Q | 지난 20년간 북민협 활동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때 북민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년간 북민협의 성과를 감히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민협이 그동안 지향점이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정보와 인력 공유, 지원 등을 제공해 단체 간 상생을 도운 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정권교체와 관련해서는, 실제 대북교류사업을 경험해보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와 같은 정치적 상황보다 교류협력 주체들이 얼마만큼 실천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예컨대 대북사업의 물꼬가 튼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도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다.

새 정부에 들어서도 북민협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민간단체가 북측에서 겪은 경험을 소중히 여겨 민간이 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하나는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라는 정치적 날개,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시킬 수 있는 민간단체라는 날개다. 두 날개의 균형이 잘 잡혀야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전된다. 국제관계, 남북 당국자 간 관계로만 남북교류협력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선자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부가 정치, 외교, 안보 문제를 그들 구상대로 풀어가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시키는 건 별개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북한에 취해야 할 기조는 취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민간교류를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Q |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남북문제, 통일분야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기성세대의 관성이다. 남북관계를 이념문제로 접근하거나, 예전 방식대로만 북을 바라보려는 고집이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막고 있다. 젊은이들이 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들이 북에 갖고 있는 불신이나 의구심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지 못했다. 북을 적이나 대결 상대로 보는 기조를 그대로 두고 젊은이들에게 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나 되돌아볼 때다. 청년들 개개인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남북관계에 대해 이전 세대들보다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전 SBS에서 남북 경제 교류를 위해 청년들을 모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년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청년들은 북을 기성세대만큼 적대시하지 않는다. 단지 국토가 막혀있고, 그들의 삶이 분단문제를 돌이켜 볼만큼의 여유가 없을 뿐이다. 오히려 북과 교류할 수 있는 장만 마련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

게,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참신한 콘텐츠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북민협은 청년들에게 북의 실상, 특히 북 청년들의 변화상과 음식, 의복과 같은 생활문화 등을 알려주려 노력한다.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 가상으로 북을 방문해보는 콘텐츠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단체가 청년들을 상대할 때 이런 영역에 좀 더 친착한다면 청년들이 북을 주제로 한 꿈을 갖게 되고, 분단문제를 풀어갈 의욕이 생겨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청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끔 노력하겠다.”

새 정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풀자

Q 남북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민간차원 교류협력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제언해달라.

“차기 정부가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은 분단국이다. 북과 문제가 발생해 국가에 불안이 조성되면 한국 경제는 요동치게 되어 있다. 대북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북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식의 대북정책을 수행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서 아쉬운 것은 대북정책을 구호, 선언, 퍼포먼스에 치중하면서 실제 민간차원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데 있다. 결국 수많은 남북 간 협의가 결실을 못 맺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북은 구호의 나라다. 그 구호가 얼마만큼의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본다. 북측 사람들이 남측 사람들에게 갖고있는 상처는, 남측이 마치 대북교류를 활발히 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발표해놓고, 정작 실천에 나서지 않았다는 배신감에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남북교류협력 문제는 관이 주도해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 남북관계처럼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류협력 추진 동력을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듯,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또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정부다. 민간차원에서의 대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은 국가 신용도와 위상과 관련된 문제다. 분단국이 어떻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제언하자면, 새 정부는 실질적으로, 작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면 남측 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북과의 철도 연결을 위한 건설사업에 나서줬으면 좋겠고, 남북 관광이 필요하다면 미래 시대 북측 관광을 위한 여러 법 제도를 갖추었으면 한다.”

Q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교류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민간교류협력 구상이 필요할 것 같다.

“국제적 이슈인 코로나19 문제는 남북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여건 개선, 기후위기 해소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떠안은 과제다. 북민협엔 북측과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2012년 북 나진역 앞에서 당시 하나누리 김정명 이사와 함께. (하나누리 제공)

4개 소위원회가 있다.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축산, 환경산림 소위원회다. 북측 단체와 대화할 틈이 생긴다면 남북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북민협은 현재 북측이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남북민간교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일방적 지원의 인도적 대북협력 방식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남북 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식으로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접목한 개발협력방식을 도입해 북측 지역 및 도시개발을 지원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이 제도적 도움을 주거나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북민협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 예컨대 나선특구에 가보

니, 일방적인 투자이익만을 노리고 나선 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 북측의 소규모 단위, 국가 단위가 꽤 있었다. 북측 당국과 투자기업들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 북민협은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 북측에 투자할 때, 그 가운데서서 기후변화, 보건의료 분야 등 남북 상생을 도모하는 투자가 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하자

Q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민협 회원단체에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세대는 미래 한반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에 통일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북을 만나야 한다. 북민협은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민화협을 비롯한 대북교류단체 역시 청년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을 텐데, 북민협과 함께 진보, 보수 등 진영논리를 극복한 통일담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그동안 북민협 회원단체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분들의 역동성, 창조성, 그리고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차기 정부에 노크한다면, 앞으로 새 정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북민협은 최선을 다해 단체 활동에 연대할 것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2022년을 바라보는 눈

“오직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을 구상하고 있을까.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어떠한 방향을 세우고 있을까. <민족화해>는 현장의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MZ세대를 초대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함께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대담은 4월 13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진행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대담 **김도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김승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승현 <통일뉴스> 기자·<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정리 **문예찬** 민화협1020통일공감기자단

사진 **김도형** 객원작가



김도희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이예정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김승현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승현
<통일뉴스> 기자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염규현(진행자)

2022년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MZ세대, 활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지금 한반도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도희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방위력이나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비핵화 진전은 미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의 전쟁이나 무력 도발에 있어 상호 두둔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관한 한·미·일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대비해 미국이나 NATO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 정당화 논리가 더 견고해지지 않았나 싶다.

이여정

하노이 이후 냉랭한 기운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리한 조건들이 더 많아졌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의 중요도가 낮아졌다. 작년에 미국 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시리즈 면담을 진행했는데, 학자들이 미중관계만 이야기했다. 남북관계가 이미 미중 전략 경쟁의 하위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남북관계 이슈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승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2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화성-17형, 즉 ICBM 발사도 단행했다. 사실상 2017년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세 변화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정상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선대선 혹은 강대강의 유보적인 입장에서 강대강으로 이미 선회했다.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김승현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밝히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계속 도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현재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유연한 대북정책 전개 여전히 중요해**진행자**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로 한정해 봤을 때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가. 기대되는 부분 혹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도희

개인적으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기대할 부분

이 적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야를 돌려 남북관계보다는 일본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한 상태로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군사적 억제력 강화는 기본값으로 설정됐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대상은 일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에서도 방위력 강화 여론이 득세하고 있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내 안보 불안을 재부상시키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다.

이예징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대선 기간에는 남북관계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인선을 보니,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군비 경쟁과 적대감을 조성하지 않길 바란다. 차기 정부가 평화 우선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승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상황을 잘 관리했으면 한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

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미중 전략 경쟁과 미러 갈등,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 한러 관계 개선 등 복잡하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단선적인 한미동맹이 갖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평화적으로 관리되었던 남북관계가 한미동맹을 단선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결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상황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또한 한미동맹이 한·미·일 동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단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이다. 지소미아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악화가 굉장히 우려된다.

김송현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차기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노선을 정한 만큼,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면서 느낀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실망하는 일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나.

김송현

개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불씨를 만들어주지 않

았나 싶다. 아쉬운 부분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

이승현

이제 분단 80년을 향해 치달고 있는데 분단 체제에 상존하는 위기감이 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녹아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왜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로서 운전자론을 펼쳤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집권 초기에 있었고 역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속도 조절론에 빠지면서 남북 정상합의의 국회 기준을 미뤘고 남북 정상 간 합의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생각이 투철해질 필요가 있다.

이예정

2017년 일축즉발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을 열었던 것은 큰 성과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훨씬 더 과감하게 밀고 갔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여지가 별로 없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었는지 실제적으로 결과가 제대로 나지 못했다.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갔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민 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관이 손잡고 간다는 것은 항상 견지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다.

김도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여러 옵션들 가운데 새로운 기본 공식을 마련했다. 앞으로 북한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때 문재인 정부가 맺어놓은 남북합의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만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아쉬운 부분은 북한 인권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치 내에서 보수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독점하게 만들었다.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은 북한의 평화나 북한 주민들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닫는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다.

한반도 평화 경험 부족한 젊은 세대의 보수성 인정해야

진행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20~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해달라.

김도희

또래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나 혹은 냉소적이나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들도 아직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

했다. 아직도 친북·용공 프레임을 붙일 수 있는 퇴행적인 인식이 살아있다. 특히, 기성세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스펙트럼을 단순하게 정리했고 청년 세대는 옛 정치 문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무관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진행자

조사를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2030세대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히 북한 핵 무력의 고도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독 2030세대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까.

김송현

2030세대 남성은 군대 경험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무력 도발에 대한 생각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통일 문제나 북한의 무력 도발에 깊게 생각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한 생각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에게 통일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무력 도발로 인해 통일을 불필요하게 인식하게 되면, 통일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북한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될 수 있다.

이예정

지금의 2030세대는 남북 간 직접 교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차이가 통

일에 대한 인식 차이의 기저에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진행자

이예정 국장은 오랫동안 민간통일운동을 해온 활동가의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국민의 통일외식, 대북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피부로 느끼는가.

이예정

어떤 경향성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2000년대에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가 가졌던 위상이 지금의 위상과 너무나 다르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관심이 떨어진다. 통일단체 후원자들은 대부분 5~60대이고, 통일 관련 행사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참석한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 만들기' 이어가자

진행자

그렇다면 민간통일운동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예정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생각에서 공통 지점은 평화다.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한반도를 정말 사람이 살아갈 만한 땅으로 만드는 적극적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

어야 한다. 물론 과거 남북 주민이 직접 만나면서 겪은 적대감 해소를 현재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과 평화 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정, 생태, 젠더 등 현재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을 예전의 시선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자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승현

지금 통일 운동이 쉽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이라는 역사적 숙명의 과제를 잊지 않고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진행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 모두 일정한 탐색기를 거쳐 상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새 정부에 어떠한 입장으로 나오리라 예상하는가.

이승현

북한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1월부터 계속 미사 일 발사를 하고 있고 대선 후에는 ICBM 발사를 했다. 북한은 더이상 무의미한 대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제안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기조는 일방적인 한미동맹의 강화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외교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일관된 기조가 선 비핵화이다. 핵무기 해체를 위해 그만큼 대가를 주는 게 국제정치의 상식이고, 상거래의 상식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상식이라고 본다.

진행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예정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지만, 상황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만남, 작은 대화가 더 큰 평화로 이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댄다면 좋겠다.

이승현

언제나 평화를 위한 꿈을 잃지 않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김도희

분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다.

김승현

한반도 평화가 과거와 달리 국가적 담론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남북관계를 개개인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청년들도 남북관계를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



민간통일활동가들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전쟁보다 평화를

장지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차장

4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방북한 지 4년이 지났다. 2018년 이후 북측 방문도, 북측 관계자와의 만남도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이뤄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이후 남측의 타미플루 지원 무산, 북미 정상회담 노딜(No Deal)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관계 단절의 상황에 이르렀다. 당국 간 관계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의 관계 역시 단절되었다.

남북이 교류하지 못한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외치면서 남측의 물자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남측 역시 북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화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전 세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많은 전문가는 향후 강력한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수많은 질병이 남북을 가

리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태계를 위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8년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에서도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고,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팬데믹 이전 감염병에 대해 남북이 함께 협력하자는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교류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지속해서 쌓아야 한다. 1972년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의 합의와 약속들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남북 정상과 실무자들이 했던 수많은 회담과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약속들이 이행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때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말하는 것보다, 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협력 등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 역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남측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지속적인 남북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창구 역시 정부 일원화보다 민간단체 등을 통한 다양화를 추구하기 바란다. 당국 간 관계 악화로 민간단체의 관계와 활동마저 중단되지 않도록 말이다. 남북관계에서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향후의 남북관계에선 전쟁보다는 평화를, 적대보다는 대화를, 새로운 약속보다는 이행과 실천에 중점을 두기를 기대해본다.

• 푸른 이완을 이끌어내는, 연결로 가꿔진 창조적 상상력 •

전이슬 하나누리 간사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다. 북소리의 파동은 많은 이들에게 한반도가 겪은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에 엄습할 단절에 두려움을 드리웠다. 세계화로 이뤄진 촘촘한 연결로 일상에서 전쟁의 고통을 체감하며 많은 이들이 간절히 평화를 기도하지만 정작 역사의 한 장면을 70여 년 동안 연장해온 남북은 관성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 모순으로 가

득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그린 데탕트’라는 이름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 하는 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꿈을 대북협력지원단체 종사자로서 함께 그려보고자 한다.

첫 번째, 남북이 함께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온갖 자연재해와 감염병이 밀어닥치고 있지만, 땅과 물

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은 서로 소통조차 어려워 기초적인 공동대응조차 어렵다.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시민들은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정과 연대 같은 기본적 가치를 포함하여 정치적으로 징벌했던 냉전 시기의 폐단이 낳은 생존법일 것이다. 생태적 재난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정치권은 시대적 책임에 통감하며 남북이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스며든 레드 콤플렉스를 걷어내야 한다.

두 번째, 칼끝에 맺힌 긴장을 완화하는 시민사회의 '창조적 상상력'을 조명해야 한다. 특수한 관계에 놓인 북한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정부로서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앞장

서 견인해간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정부가 남북의 교류를 위해 정부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뚫어내는 시민단체들을 힘껏 밀어준다면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정통성있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전이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이 정부가 종전과 영구한 협력이라는 가장 큰 국가 변영의 기반을 닦아낸다면 어떨까.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 시민사회의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폭발적인 힘은 남북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5년을 꾸리기 전 남북의 가교가 되어 마음과 물자를 나르고, 어려운 순간에도 상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북협력지원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푸른 상상력과 혁명적 연결로 꿈을 일궈왔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남북이 바라보는 평화의 의미 성찰해야 •

성정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간사

지난 4월 19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인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철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른 남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 또한 곧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라 한다. 우리가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래 북한이 보내온 메시지는 일관적이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맥을 이어오며 추진한 남북협력사업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정부에서 평화를 이

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남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준비한다 하고, 미국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의 꿈에 부풀어있는 와중에도 휴전선 북쪽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왜 북한과 대화해야 하나'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 저런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통일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역으

로, '북한은 왜 남한과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대북제재는 더욱 심화되었고, 남한은 휴전선 부근을 통제하는 유엔사가 불허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감기약도 보내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란 이미 그 취지와 목표, 실제 정책 효과와 관계없이 단순히 '불량국가'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손쉬운 도구가 되어버렸다. 제재에 관한 북반구 선진국(Global North)의 인식은 상당히 안이하고, 남한 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열 번 말할 때 제재에 관해서 한 번쯤은 언급하는 정도의 용기를 보일 수는 없었을까? 제재 해제가 아니더라도, '스냅백'이나 '모라토리엄'같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라면, '우리는 당신들의 일상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자 문화권에서 평화(平和)라는 단어는 '쌀(米)을 사람들(口)에게 균등하게(平) 나누어 준다(和)'는 뜻에서 유래했다.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명제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현재 남북이 바라보는 평화는 많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매년 200만 톤의 쌀이 남아도는 나라와 100만 톤의 쌀이 부족한 나라에서 규정하는 평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휴전선 이남으로 내려와 평양냉면에 관한 농담을 하는 것이 평화로 다가왔다면, 북측 주민들에게 평화는 그보다는 더 절실한 무언가가 아닐까 싶다. 당장 나에게 쌀이 균등하게 나누

어지지는 않더라도, 남측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 무던히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진심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MZ세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해온 시민 사회에서는 MZ세대가 북한과의 평화와 협력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고심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지점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MZ세대이고, 향후 30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이다. 냉전 후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풍요로운 물질적 기반과 더 강력한 동맹국, 따라서 더 많은 '선택지'를 보유해왔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다. 그렇다면 향후 30년은 어떨까. 앞으로의 30년이 지난 30년과 같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를 비롯, 신(新) 냉전 구도의 부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이 남한과 대화해야 할 이유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향후 5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국내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단발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의 한반도를 원하는지에 대한 합의에 기반해 무엇을 양보하고, 때로는 무엇을 포기할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70여 년,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쳐 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뼈아픈 성찰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ICBM발사와
한반도

도전받는 남북관계, 신정부의 선택은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110주년인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은 2018년 4월 개최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어진 북한 비핵화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그간 넘지 않았던 경계선의 끝자락마저도 이제 건너고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높이며 또 다른 승부수를 노리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시작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 1월에 총 7번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1월 5일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이어 14일에는 평북 의주 일대에서 열차 기반 탄도미사일(KN-23) 실험,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KN-24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다. 이어 25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뒤 27일에는 KN-23 발사까지 이어졌다.

북한은 같은 달 30일에는 ‘화성 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예고된 수순이다. 북한은 올해 1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소집한 뒤 미국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꺼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1년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유예 조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한국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였고 심각성을 높이 평가했다.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ICBM 시험발사 중지 및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올해 1월 정치국 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반복할 경우 9·19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 탄도미사일 쏜 뒤 ‘위성발사’ 항변

북한은 2월 4일 개막한 뒤 20일 폐막한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2월 24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3일만인 27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이어 하루 만인 28일 퍼낸 노동신문에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위성발사’라는 명분으로 대북제재의 빈틈을 노린다. 27일 쏜 미사일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우주 촬영 사진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추후 우주발사체를 쏜 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닌 평화적 우주 이용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위성으로 위장한 ICBM을 쏠 경우 앞서 약속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는 무력화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지나칠 정도로 의욕을 보인다. 2월 27일을 시작으로 3월 5일과 16일까지 연이어 화성-17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16일에 쏜 세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평양 인근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같은 달 24일 또 다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마친 뒤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냈다. 이를 두고선 논란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쏜 미사일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라며 고도 6,248km까지 오른 뒤 67분 동안 1,09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발표를 그대로 해석하면 최대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기존 화성-15형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3월 16일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2017년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15형을 대신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무엇이 북한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상황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위기 상황을 꾸준히, 단계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군사 분야 성과를 내세워 경제제재에 따른 정권에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의도에 따른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선택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에 ‘급변시대’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북미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비핵화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이때 핵시험장 폭파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나 비핵화 협상은 진전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는 11월 8일 미국에선 중간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정치적 변환기를 맞아 북미 관계 및 비핵화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위기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정세가 북한이 올해 초 마련했던 계획을 크게 흔들고 있다. 북한에겐 일종의

‘급변사태’가 됐다.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 전략에도 매진하고 있다. 전략 경쟁의 전선이 중국을 넘어 러시아 영역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 우선해야 할 안보적 선택에서 북한이 밀려난다. 북한이 추가 핵무기 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압박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 가야 할 상황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이처럼 비핵화 협상 여건이 악화하고 한반도 안보 지형이 불안정 상황으로 전환될 경우 2017년 한반도 위기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를 오늘날 러시아 침공의 원인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 상실에 대한 효과에 집착할 여지가 있다. 대외정세가 북한 비핵화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尹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한국에선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대북 및 남북관계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수 정부는 군사적 대비태세, 진보 정부는 대북 화해를 지향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핵화 해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협상’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가 적시됐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 전략이 큰 폭으로 전환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공약 중 ‘한미 간 연합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은 9·19 군사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남북관계 전반의 재검토가 가능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신정부 출범에 앞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북한은 4월 16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최대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110km 수준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고 크기만 다소 작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될 경우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맞춤형 전술 핵무기로 쓰일 수 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발전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 위협을 ICBM 개발에 맞춰 진행했다. 이는 바다 건너 미국을 노린 전략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을 추동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전략도 병행한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비핵화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 지켜만 보지 말라는 협박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운 압박을 통해 협상장 문을 열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박용한은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에서 연구했고,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군사안보연구소 기자로 국방·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했다.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민화협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투탄 의거의 주인공 나석주 의사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

당시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국가보훈처



나석주(羅錫疇, 1892.2.4~1926.12.28) 의사는 황해도 재령군 북률면 진초리에서 아버지 나병헌(羅秉獻)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나석주는 고향의 보명학교를 거쳐 안악에 있는 양산학교를 다녔다. 이때 양산학교 설립자이자 교사였던 백범 김구의 애제자가 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재령평야 9만 평을 강제로 빼앗은 지 2년 후인 1913년 나석주는 처자를 데리고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이동휘(李東輝)가 운영하던 나자구무관학교를 다녔다.

1915년 모친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정미소를 경영했는데,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사리원지점에 농토를 전부 몰수당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나석주는 김덕영을 비롯한 동지들과 수만장의 태극기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3월 10일 재령군 북률면 내종리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3·1운동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김덕영, 최호준, 최세욱, 박정순, 이시태 등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였다. 이들은 군자금 모금 활동과 친일파 숙청 등을 전개하였다. 사리원의 최병향과 안악의 원형로 등의 부호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내고, 농민들의 원성이 높

았던 은율 군수와 일본 경찰 1명을 처단하였다. 이들의 활동이 봉산, 사리원, 황주, 재령, 안악 등 황해도 일원으로 확대되자 일본 경찰은 감시를 강화하였다. 그 후 구월산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던 이들 '6인 권총단'이 밀고로 전원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나석주는 단신으로 탈출하여 목선을 타고 황해를 건너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상하이로 건너간 나석주는 김구를 만나 국내에서 모금한 군자금을 전달하였다. 당시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다. 나석주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국군관학교로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다. 수료 후 중국군 장교로 임관되어 육군강무당(陸軍講武堂)에서 복무하였다.

상하이에서 김창숙(金昌淑)·이동녕(李東寧)·김구 등은 국내정세가 어려워 독립운동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청년결사대를 국내로 침투시켜 일제의 통치기관을 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사를 일으켜 민족혼을 일깨울 것을 제의하였다. 김구는 텐진(天津)에서 중국군 장교로 복무 중인 제자 나석주와 의열단원 이화익(李化翼) 등을 추천하였다. 이에 김창숙은 류자명(柳子明)과 의열단 간부 한봉근(韓鳳根)을 같이 만나 거사 계획을 설명하고, 1천 5백 원을 주면서 무기 구입을 부탁하였다. 그 돈으로 한봉근이 폭탄 3개, 권총 7정, 실탄 490발을 구입하여 김창숙에게 건네주었다.

1926년 5월 초에 김창숙은 베이징으로 가서 신채호(申采浩) 등을 만나 거사 계획을 설명하고, 신채호에게 무기 보관을 부탁하였다. 이어 텐진으로 간 김창숙은 나석주, 이화익과 면담하여 거사 임무를 맡겼다는 승낙을 받았다. 7월 21일 류자명과 한봉근이 텐진에 와서 이들과 합류하였다. 이들 5인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였는데 이때 나석주가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타격할 것과, 함께 모인 4인의 의열단원이 동반 입국하여 거사를 실행할 것이 합의·결정되었다. 타격 목표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으로 정한 것은 나석주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된다.

텐진에서 거사를 결정하고 국내에 입국할 방법을 찾다 보니 몇 달이 지나고, 그 사이 거사 자금 1천 1백 원이 거의 바닥났다. 결국 나석주가 신채호로부터 폭탄을 인수하고 혼자 황해를 통하여 밀입국하여 거사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마중덕(馬中德)’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으로 위장하고 1926년 12월 27일 인천항에 도착한 나석주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잠입하여 남대문 중국인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유서 3통을 방에 두고 여관을 나온 그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을 사전 답사하였다. 오후 2시가 되자 동양척식주식회사 1차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아, 조선식산은행으로 달려가 안으로 들어서며 투탄하였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다시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뛰어들어가며 1층 사무실과 계단에서 일본인 사원과 기자 1명씩을, 2층 토지개발부 기술과에서 일본인 과장과 차석을 쏘아 쓰러뜨린 다음, 총을 난사하며 나머지 폭탄 1개를 던졌다. 현관 앞 수위와 방문객 1명에게도 총격을 가하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빠져나온 나석주는 황금정(黃金町) 길에서

마주친 경기도 경찰부 경부보 다하타(田畑唯次)에게 권총을 쏘고, 뒤쫓아 온 일본인 경관 4~5명과 총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폭탄 폭발음이 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급하여 안전핀을 빼지 않아서였다고도 하고, 6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폭탄의 뇌관에 이상이 생겨 불발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황금정 2정목(丁目)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좁혀진 일경의 포위망속에서 나석주는 구름처럼 모인 군중을 향해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고 외쳤다. 말을 마친 그는 세 발의 실탄을 자신의 가슴에 쏘아 쓰러진 후 일경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조선총독부가 나석주 의사 의거 보도를 통제했다가 1927년 1월 14일에야 해제하여, 뒤늦게 의거 전말이 신문 호외 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나석주의 시신을 인수하러 상경한 만아들 응섭은 일경에 구금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나 공동묘지에 가매장된 부친의 시신을 찾았다. 나석주의 시신은 재령으로 모셔졌으나 일경의 입회 아래 비석도, 꽃말도, 문상객도, 상여꾼도 없이 봉분조차 없는 무덤에 묻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석주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2021년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나석주 의사의 고손(박강덕 광운대 재학)이 선정되었기에, 나 의사의 숭고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올해도 민화협은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릴 것이다. 🌸

이동연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독립운동사)를 전공했다.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사)한국역사문화원 부이사장 겸 연구소장, (사)백산인학회선생기념사업회 백산학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모습

이용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재단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팬데믹이 꺾이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새로운 변이의 등장이나 재유행 등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했다는 안도감과 고양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들떠있는 분위기 가운데 마음 한구석 어딘가 불편함이 남아있다. 즉, 감염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당장의 방식이 지속과 존속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가 ‘연대’보다 ‘단절’을 택했다. 물리적으로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각 국가들은 교류를 차단하거나 제한했

다. 그리고 고립을 선택한 인류는 ‘위생’이라는 미명 아래 전례 없이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물동량이 적어짐에 따라, 원유 가격이 하락하며 플라스틱의 생산 비용도 매우 저렴해졌다.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저렴해지며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참이었던 2020년, 한국은 이미 1일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약 6만 톤이었으며 2019년 대비 약 2천 톤이나 증가했다. 교육지책이었겠지만, 부끄럽게도 한국은 이미 팬데믹 유행 이전부터 연간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계 3위였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한반도의 바다가, 특히 서해가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죽어

가고,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따르면 북한 해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은 전 세계 2위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양 쓰레기는 80퍼센트가 육지에서 발원하는 점, 국내 해양 쓰레기의 약 60퍼센트는 플라스틱이라는(2020년 해양수산부 통계) 점에서 이는 당장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유해물질과 결합하는 특성과 풍화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으로 수자원 오염과 멸종을 초래한다.

실제로 벨기에와 스웨덴 등의 환경학자 공동연구팀이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환경오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해는 미세 플라스틱에 매우 취약한 해역이다. 이대로 개선 없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50년쯤에는 서해의 약 27퍼센트가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으로 해양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곳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1년 7월, 북한은 UN경제이사회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현황과 계획이 담긴 자발적 국가리뷰(VNR)를 제출했다. 이 중 '해양생태계 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해양오염을 극복하겠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해결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8·3인민소비품운동'과 '재자원화법'을 통해 공업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제재로 인한 자원 사용의 효율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환경과 해양생태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점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쓰레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미 배출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화를 진행하고 해양 쓰레기를 재자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단순히 정화와 재자원화만 할 뿐 아니라, 남북의 환경·해양 협력을 경제협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외국 사례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 '부레오(Bureo)'는 연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폐그물 수거와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폐자원은 스케이트 보드, 의류 등으로 업사이클링 판매를 하고,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는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일부 부품에 재활용 원자재를 사용했다. 이러한 점은 더이상 환경과 경제는 대척점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해결을 지속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남북의 교류협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군사적 충돌, 핵무기, 전쟁과 같은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의 '새드엔딩'은 어쩌면 일상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제 항상 부차적이고 선택적이었던 환경 이슈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줄어드는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을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환기하고 남북관계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 🌍

* 본 칼럼은 2022년 4월 '해양 쓰레기 남북교류협력' 시민 공론장의 기초 발제 일부를 참고하고 필자의 견해를 더했음을 알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

전병화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사회복지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남북관계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비전이었다. 문 정부는 출범 후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9월 평양선언 등을 이끌어냈다. 남북 정상은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11월 나 역시 민화협 기자단 자격으로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었다. 처음 DMZ를 넘었을 때 설레는 마음보단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더 컸다. 부모님도 내가 금강산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위협하다고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을 정도였다. 그러나 금강산에 도착해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있는 동안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은 빠르게 사라져 갔다. 외국에 나가면 언어부터 시작해 이질감이 들기 마련인데 금강산을 갔을 때는 이질감이 훨씬 덜했다. 대화를 해보니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생활양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측은 결혼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남측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요. 사람의 됬됨이를 보고, 서로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 등 남북이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금강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 깨졌듯이, 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울 상대가 아님을 깨닫고 느끼길 바랐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 그 밖의 남북교류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남북의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깨지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해빙되어 가던 남북의 분위기도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남북교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가져오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어긋나고, 북한 역시 어려운 경제난을 남북교류사업을 돌파구로 개선해보고자 했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그 책임을 남한과 미국으로 돌렸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최근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남북이 있다. 피해를 입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남북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제일 피해를 입는 건 바로 남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일 것이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면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있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다면 어땠을까?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현상유지(Status quo) 즉, 분단된 현재 상태를 가장 선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들어선다면, 중국은 주한미군과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맞닿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미국 역시 통일된 한반도가 들어선다면, 한국은 무기 수입을 줄일 것이고, 국력 강화로 인해 더더욱 미국

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뿐,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더 마음이 아픈 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이라도 하려 했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지만, 속내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N 상임이사국인 중국, 미국이 남북이 해빙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허용하려 하겠는가? 남북관계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다.

현재 남북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고, 다시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총칼을 맞대고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몇십 번 넘어져도 꼴깍이 일어나는 오뎅이 같은 민족 아니던가?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우뚝 솟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다.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IMF 금융위기 또한 최단기로 극복했다.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남북의 교류와 평화를 위해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분명 돌파구를 마련해 어떤 위기와 난관도 극복하고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인물

외교·통일분야 쟁치 실세 포진 尹정부의 '네모난 동그라미'?

김아영 SBS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4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호 첫 출발은 '실세 정치인·최측근'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13일 2차 인선 발표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일찌감치 지명했다. 이들과 윤석열호의 첫 닻을 올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교체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인사를 보면 '실세 정치인과 최측근' 기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본 글은 4월 24일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세간의 관심은 법무부 지명자에 쏠렸지만, 외교·안보라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한다. 다른 인사들은 비교적 공개된 카드였던 반면,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일부는 정중히 고사했다. 권 내정자는 본인이 국회에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터라, 이 발언이 본의든 아니든 연막처럼 작용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중진 의원을 '굳이' 통일부 장관 자리에 지명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통 관료나 학자 출신이 아닌 실세 정치인을 기용한 것은 나름의 관심 표명으로 읽힌다. 역시 4선 중진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는 균형을 맞췄다.

"보수 정부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원칙과 실용 강조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한 첫 날(4월 14일) 기자들을 만났다. 파격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권 후보자는 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할 것이라는 대체적 전망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발 뺐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되기 어렵다. 2인 3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추가로 남기기는 했다. 그는 "통일부는 큰 측면에서는 (정부 기조와) 같이 가면서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우호적이라고 해야 할까, 대화를 통한 해결진전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권 출범에 따른 대북 민간단체들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

는 “(보수정부라고)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수위원회도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경책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대북 유화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언급한 데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임을 의식한 발언들로 풀이된다. 사실 정권이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실용’을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그 선에서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는 이를 형용 모순인 ‘네모난 동그라미’에 비유하기도 했다. 궁극하다. 네모난 동그라미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

‘윤석열’과 ‘신냉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 스케치하기 전, 어떤 구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막상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대로 그릴 수 없을 때가 태반이다. 펜과 붓의 질감이 평소 쓰던 것과 다를 수 있고, 도화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풍경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일기예보도 틀렸을 수 있다. 심지어 생각과 감정도 바뀐다.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과정도 이런데, 나라와 나라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시공간의 질서는 어떨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여러 변수들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인해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의도했던 아니던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한쪽이 의도하고 바라는 대로만 굴러갈 리는 없다. 그래서 전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 관심 있게 볼만한 변수들을 짚어보려 한다.

먼저 ‘윤석열’ 변수다. 대통령에 따라 대북정책의 향방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선인 스타일을 놓고 보니 더욱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이미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만류나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와도 하겠다고 하는 건 관철시킨다. 시쳇말로 ‘꽃힌 건 한다’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그런 스타일이 대북정책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내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는 초치기 이사 중이고, 외교부는 장관 공관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음은 한반도 바깥 나라들, 미국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변수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져갈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미국으로부터는 음으로 양으로 다양한 명세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명세표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관련된 요구일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미 신냉전으로 불리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고, 남북관계는 그만큼 풀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 신호는 아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두둔했고, 이 기회에 점수를 두둑이 따다. 혹은 정부가 북한과 할 것은 하겠다며 '실용' 노선을 취하려 한들 북한이 필요없다고 하면 어찌할 도리는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보협이 있다. 또 하나 주목하는 지점은 역대 정부가 전혀 꺾지 못했던 변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2020년 이후 다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절대적 변수였다. 여전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윤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퇴장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문을 열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때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윤 정부가 이 변곡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복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북한은 지금... 네모난 동그라미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4월 20일과 21일 친서를 교환했다. 정권 출범 초기였다면 국면의 전환점으로 읽혔겠으나, 이번엔 그렇게 읽기 어렵다. 북한은 문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

남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친서에 화답하는 내용이지만, 차기 정부를 의식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친서 교환 사실은 북한 내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낸 박정천 비서·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에 실렸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우호적 태도로 전환하려 한다기보다는 대외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한반도 정세는 그리 밝지 않다.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연거푸 쏘고, 핵 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첫 과제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끝도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당 대회에서 5년짜리 국방 계획(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km 무인정찰기 개발)대로 할 일을 할 것이다. 이중 잣대를 언급해 온 북한은 고비마다 남측 논리에 반박하고 나올 것이다. 정치 문제와 사회 문화 교류가 분리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원칙과 실용이라는 네모난 동그라미가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김아영은 2008년 SBS에 입사해 2018년부터 북한 및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독립운동사(史) 반추한 미래비전 ‘통일’ 실천해야

민화협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과 2020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3회를 맞이한 올해도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3백여 명의 지원 속에 지난 5월 3일 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첫 회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실상은 3대가 아닌 4대, 5대까지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희산 김승학 선생의 장손이다. 희산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의 사장이자 육군주만참의부 참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일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새 정부 주요 부처를 책임질 인물들의 과거 친일 행보는 청문회에서조차 변명이 아닌 신념으로 당당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대학 내 학과 통폐합으로 역사학과 수가 점점 줄어들며 독립운동 연구도 위축 너머 사멸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화협은 김병기 위원장에게 이번 제3회 장학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200년을 향한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5월 3일 민화협 사무처에서 진행되었다.

대담 및 정리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과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이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올해도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중·고생을 포함하여, 친손과 외손, 국내와 해외 등을 가리지 않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하도록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처럼 이념이나 국가, 훈격 등을 따지지 않고 독립운동한 사실만 정확히 판명된다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해외 장학생을 중점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해외 후손들은 그간 국가 차원에서 국내 후손보다도 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의병장 민공호, 연해주와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의 거두 최재형, 북간도 지역에서 우리 역사와 한글 교육에 매진한 계봉우 선생들의 후손이 선발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지원했다. 장진홍 선생은 비밀결사 광복단에서 일제의 수탈기지 역할을 한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한 주역이다. 일제에 체포된 후 최종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는 일제에 대한 마지막 항거로 자결, 순국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선발됐다.

“장진홍 선생이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거사를 치를 때 함께 도왔던 인물이 김정술 선생이었습니다. 김정술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와 만주지역 의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국가로부터 서훈 받는 것을 거부하셨고, 사후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장학사업 최종 선발명단을 보니 김정술 선생 증손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장학금이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회 사업은 작년보다 3명 증원된 5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매회 사업을 거듭할수록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아닌 4대, 5대까지 힘든 상황에 놓인다는 슬픈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생계 속에서 학업을 놓지 않고 꿈을 이뤄가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채 진화한 친일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다.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꾸러지고 7천여 명의 친일파를 추려냈지만, 법정에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해체되고 말았다. 당시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과 이승만 정권의 친일 청산 비협조의 영향이 컸다. 친일청산 실패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렸다.

그 부작용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 웹툰 작가의 독립운동가 비하 발언, 친일을 정당화한 <반일 종족주의> 출간 등 문화예술계와 학계는 물론 최근 정부 기관이 친일전시를 열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19년부터 ‘가야 본성’ 특별전을 했는데,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일본이 가야에 일본부 기관을 두어 한반도 남부지역인 신라, 백제, 가야를 지배했다는 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많은 연구로 임나일본부설이 허구라 밝혀졌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공연하게 전시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와 유네스코 등재까지 추진하려 해 큰 논란을 낳았다.

“나라를 되찾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포상을, 친일 반민족

세력에게는 응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정립하지 못하자 사회정의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친일세력은 우리 사회 주요 요직을 맡게 된 것을 두고 스스로 복권되었다 여기며 더 공고하게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숨어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독립자금에 쏟아부은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일제를 따돌리며 활동하는 특성상 자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변변치 않은 경제적 여건 속에 국가 차원 포상과 예우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고된 생계를 꾸려나가는 속에서 ‘독립운동’을 입에 올리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사(史) 연구, 국가가 나서야 할 때

국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1962년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주로 학자들이 모여 밀실 심사로 진행했는데 대부분 친일 학자들이었다.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4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후손들이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이 비밀리에 했던 활동이며, 국내 자료들은 훼손되거나 사라졌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보관된 자료는 접근조차 힘든데, 어떻게 개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많은 후손은 독립운동을 한 조상이 ‘증거불충분’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본인이 못나서 그렇다는 죄책감 속

에 살아갑니다. 관련 자료 확보에 있어 정부 차원 지원과 협조는 물론 일정 부분 독립운동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명예를 기리는 차원에서라도 공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친일청산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독립운동사(史) 연구다. 독립운동 연구는 1980년대 대학가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독립운동 조직과 활동가를 발굴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자본의 논리와 학령인구 감소 심화로 대학들은 인문학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다. 역사학과도 피해가지 못했다. 학과의 존립 여부는 대학원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립운동사 연구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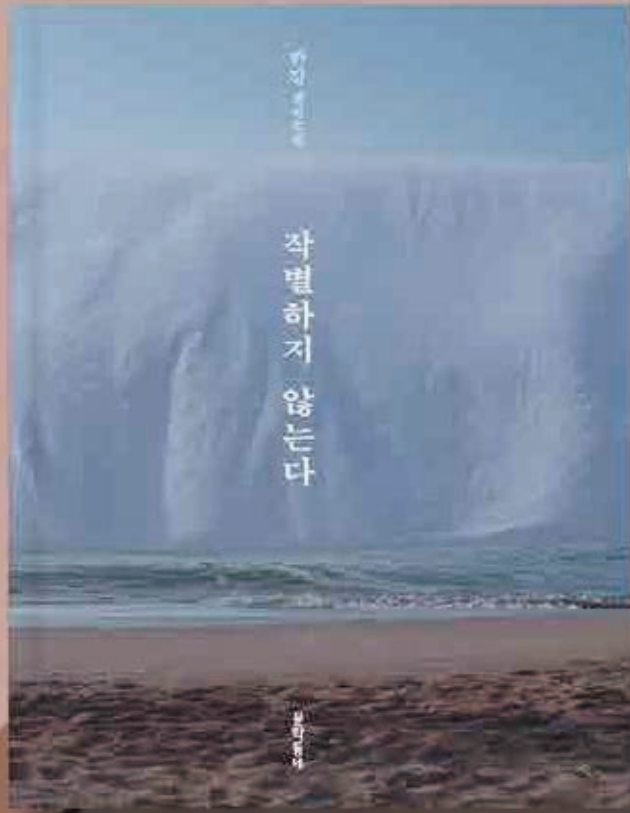
“이제 40년이 된 독립운동사 연구는 큰 열개만 잡은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이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예컨대 국립대학이나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부설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독립운동사 명맥을 이어가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50대 이하 신진학자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40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역사와 교육으로 미래비전 제시해야

김병기 위원장은 마흔이 넘어 독립운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른 독립운동 집안과 마찬가지로 힘든 가계를 일으키고자 대학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회사 김승학 선생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사 집필이라는 가업을 외면할 수 없었다. 희산 선생은 독립운동가로는 최초로 <한국독립사>를

편찬해 해방 후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했고, 김 위원장의 부친 김계업 선생은 <한국독립사>를 한글 작업하여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추가한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를 저술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맡아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사>를 출간했다. 그는 역사와 교육으로 우리 사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위당 정정보 등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여기며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정신이란 곧 역사입니다. 역사학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제시하려면 과거를 배워야 하죠.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은 자신에 대한 탐구를 최우선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절제와 인내,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신(修身)이란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우리에게겐 미래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통일’, ‘민족’이라는 이상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점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며 오로지 경쟁과 성공만을 강조하고 있죠.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큼니다. 저는 우리나라 미래비전을 ‘통일’이라고 봅니다. IT 강국,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적, 과학기술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죠. 과거 나라 잃은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꿈꿔왔던 조국은 통일된 국가였을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힘든 시기에 청년들이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꿈을 갖고 마흔이 넘어 공부했듯 말이죠. 부디 새 정부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학 속 통일미래 31

제주도 4·3 사건을 응시하는 절절한 애도로서의 서사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론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오태호는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 - 21세기 북한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1. 고통스런 사랑의 서사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는 1948년 발발한 제주도 4·3사건을 응시한다. 작가는 소설가 화자인 경하가 제안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 감독인 인선이 제주도에 혼자 진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경험한 뒤, 제주도 4·3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추체험하도록 이끄는 애도의 서사를 보여준다. 1980년 5월 광주의 폭력과 학살을 장편소설로 형상화한 이후 진행되는 소설가의 ‘악몽과 자살 충동’을 시작점으로 하여, 제주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손가락 절단 통증’을 매개로 ‘역사적 통증의 공유’를 통해 ‘연대와 공감’의 목소리를 의미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작가는 고문과 폭력과 학살로 줄지에 생을 마감한 역사의 희생자들을 망각하려는 ‘시대의 몰락’에 대해 아프게 질문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참혹한 희생의 역사와 작별할 수 없다면서 지독한 고통의 서사를 빚어낸다. 사랑은 고통의 다른 이름이며 존재자의 성장소멸을 함께 공감할 때 애도와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2. ‘고문과 폭력’을 증언하는 소설가 경하의 고투

작품은 경하가 ‘1980년 광주학살’과 관련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2014)를 출간한 뒤 악몽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화자가 “우듬지가 잘린 단면마다 소금 결정 같은 눈송이들이 내려앉은 검은 나무들과 그 뒤로 엮드린 봉분들 사이”를 걷는데, 지평선인 줄 알았던 별판의 끝이 바다였고, 밀물이 밀려오면서 아래쪽 무덤들이 봉분만 남고 쓸려가 버리는 가운데, 위쪽에 묻힌 뼈들을 옮겨야

했지만 아무것도 못한 채 물을 가르며 달리는 꿈을 꾸는 이야기가 묘사된다. 꿈 이후 계속해서 떠오르는 광경에 마음이 쓰인 경하는 나무 99그루(무한으로 열리는 숫자)를 심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나무들의 몸에 먹을 입히고자 기획한다. 그리고 흰 천 같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들을 덮어 주길 기다리는 과정을 짧은 기록영화로 만들자고 친구 인선에게 제안한다. 흑백이 대비되는 상징적인 영상화를 통해 역사적 피해자들에 대한 일종의 위령제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4년 전 경하가 검은 나무들의 꿈 이야기를 꺼낸 이후 끝없이 연기되던 그 일을 작년 8월 인선이 벌써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러던 오늘 인선으로부터 ‘지금 와줄 수 있냐는 문자를 받고 ‘봉합수술 전문병원’으로 향하면서, 목공방에서 사고가 있었음을 짐작한다. 병원을 방문한 경하에게 인선은 2일 전 아침 전기톱에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잘렸다가 봉합된 손을 들어 보인다. 수술이 잘 되었지만, 신경을 죽이지 않기 위해 통증을 느껴야 한다면서, 3분에 1회씩 24시간 동안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비늘로 검지와 중지를 찔러 상처를 내고 소독하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경하의 제주행을 부탁한다.

3. 역사의 희생양을 기록하는

인선의 다큐멘터리 영화 3편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인선이 제작한 단편영화들 중 처음 호평을 받은 것은 베트남의 밀림 속 마을들을 헤매다니며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기록이다. 그리고 인선의 두 번째 단편의 주인공은 16세에 5일 동안 혼자 만주 별판을 가로질러 독립군 캠프로 복귀했다던 할머니인데, 그 여

정에서 동상을 입어 발가락 네 개를 잃는다. 평양에서 방직공장에 다니다가 야학 선생님들을 따라 나섰다가 강에 뛰어들어 혼자만 살아남았다면서, 불꽃 같은 게 활활 가슴에 일어서 얼어 죽지 않은 것 같다고 인터뷰한다.

3번째 영화에서는 제주에서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민간인들의 자료 영상이 이어지고 영화가 끝나기 직전, 유골 수백 구가 묻힌 구덩이가 맥락도 설명도 없이 1분 가까이 클로즈업되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인선은 10년 전에 만주에서 돌아오던 비행기에서 “뼈들을 본 뒤부터”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 가을에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유골들이 발굴됐는데, 인선에게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있던 유골 한 구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유골의 내력을 추적하고 상상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인선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촬영이 이어지고, 영화에서는 동굴에 숨어 살던 아버지가 ‘살해된 할아버지 시신’을 매장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동굴에서 본 어둠과 눈 위에 찍히자마자 지워진 발자국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결국 인선의 마지막 영화는 ‘아버지의 역사에 부치는 영상 시’라는 영화제 기획자의 우호적인 촌평을 부제처럼 매달고 상영된다. 결국 인선의 영화는 역사의 희생양들을 위한 애도 작업의 소산이었던 셈이다.

4. 경하와 ‘상상 속 인선’의 제주에서의 조우

인선의 부탁대로 경하가 인선의 공방에 가까스로 들어서면서 30그루 남짓한 통나무들을 마주하게 된다. 2m의 키를 훌쩍 넘긴 나무들이 12세 전후의 아

이들처럼 느껴지며, ‘검게 칠해진 나무’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전율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경하는 인선이 죽으려고 공방에 왔을 것이라면서, “불꽃을 뿜으며 무너져 앉을 이 집으로. / 조각난 거인의 몸처럼 겹겹이 포개져 누운 나무들 곁으로”(172쪽) 온 것으로 짐작한다. 경하의 상상 속에서 인선이 경하에게 프로젝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묻자 경하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다. 인선은 “작별인사만 하지 않는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라고 반복해서 묻는다. 그러나 대답 없이 뜨거운 차를 마시던 경하는 “인선이 혼으로 찾아왔다면 나는 살아 있고, 인선이 살아 있다면 내가 혼으로 찾아온 것일 텐데, 이 뜨거움이 동시에 우리 몸속에 번질 수 있나”를 자문한다. 결국 작가는 경하와 인선의 조우를 통해 확실당한 희생양과의 작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공유하고 애도를 지속하고자 작품을 기획한 것이다.

공방이 있는 집은 인선 엄마의 외가였다. 4·3사건 당시 13세였던 인선의 엄마는 보리밭에 죽어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 아래에 8세 여동생이 깔려있는지 살피고, 배에 난 총알구멍과 턱 아래쪽에 구멍이 있던 ‘의식 없는 동생’을 17세 이모와 교대로 업고 당숙네까지 걸어온다. 그때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동생의 입에 피를 흘려 넣는 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을 때 엄마는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1960년 이후 엄마가 외삼촌의 뼈를 단 한 조각도 찾지 못해서 유해 수습에 실패한다. 그때 경하는 한기를 느끼는데, 그제서야 엄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를 물었을 때 인선이 즉시 부인한 이유가 짐작되기 때문이다. 4년 전 자신의 책에서

누락되었던 학살의 피해자들처럼, 영화에서는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질 거다. 악몽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거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를 직감했던 것이다.

5. 인선 엄마의 고통 응시와 망자에 대한 애도 제의

경하는 인선의 공방에서 뼈들이 찍힌 사진 위에 손을 얹는다. 그때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들. / 아니, 아직 인간인 것들”(301~302쪽)을 느끼며, 경하는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더 깊게 입을 벌린 해연(海淵)의 가장자리, / 어떤 것도 발광하지 않는 해저면”(302쪽)에 닿은 것 같은 ‘깊은 고통과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감지한다. 그것은 망자의 내력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고통’이자 ‘애도의 통증’에 해당한다. 이후 엄마가 돌아가신 뒤 경하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난 인선은 나무 심을 땅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한다. 결국 아버지의 집터를 찾아와 그곳이 엄마가 다녀온 곳이라는 사실을 인선이 알게 되고, 뼈들의 형상과 환영을 보게 된다. 3만 명의 제주지역 사망자, 육지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언급하면서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을 떠올리는 인선은 10월의 제주 바람 속에서 망자들의 숨결을 느낀다. 인선은 그때 ‘황홀한 고통’과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경하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경하는 인선이 지금 이곳에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반대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경하가 끈질기게 인선이 자리했던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상상한다. 죽음이 이렇게 생생할 수 있는지, 뺨에 닿은 눈이 이토록 차갑

게 스밀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하에게 더 이상 인선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자 경하는 아직 사라지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성냥개비를 그어 불꽃을 피우는데,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325쪽) 영상이 느껴진다. 그리고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 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6. 애도와 치유의 힘

애도와 치유는 동전의 양면이다. 물론 정상적 애도가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도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1948년 제주 4·3사건의 여진은 2020년대에도 여전하다. 역사가 마치 과거의 유물인 양 망각의 세계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강은 사후적 애도를 위해 소설가의 윤리를 되짚어보며 장편소설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소설은 역사의 희생양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서사로 완성된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 경하의 시점 속에 시대적 중압감을 감당하는 서사적 개인의 역사적 악몽과 고통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인선과 인선의 엄마, 인선의 외삼촌, 인선의 부친 등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제주도 4·3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사후적 노력의 고통을 직시한다. 그 직시한 자리는 ‘참혹한 학살의 현장’이지만, ‘지독한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과 고문과 학살의 고통을 피해자와 함께 들여다보며, 그 가족과 함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애도의 통증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엄연히 살아 있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



남북의 동계스포츠②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대한하키협회 회장

지난 연재에 이어 남북의 동계스포츠 우표 발행 역사를 따라가 본다. 북측은 1970년대부터 다양한 동계스포츠 우표들을 발행했다. 우표 수집가들에게 있어 스포츠 소재의 우표는 항상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춘 결과라 생각된다. 북측은 1978년 삿포르-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1972년의 일본 삿포르 올림픽과 1976년의 인스브루크 올림픽의 주제를 묶어 발행한 것이다. 이어 1979년에 1980년 개최될 제13회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 우표에 '미국'이나, 개최도시인 '레이크 플래시드' 등의 표기가 없이 그냥 '동계올림픽(winter olympic games 1980)'이라고만 표기된 것이 눈에 띈다. 당시 미국과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기 있는 주제인 동계올림픽 우표를 판매해야 하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은 올림픽 개최기념뿐만 아니라, 종종 올림픽 대회 우승자들을 기리는 우표들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후 14회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15회 캐나다 캘거리, 17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를 비롯해, 2014년 22회 러시아 소치 올림픽 기념우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계스포츠 우표들을 발행해왔다. 하지만, 23회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우표가 발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측은 1997년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

회 기념우표 이후 2006년에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의 일환으로 스노보드 우표 4종을 스티커 우표로 발행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표는 편지봉투나 엽서에 붙여서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은 우표 뒷면에 풀이 발라져 있다. 이것은 침을 발라 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위생상의 문제로 뒷면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접 풀을 발라 붙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스티커 우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표 자체로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 천공의 톱날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인쇄지질도 스티커용 종이의 한계로 은은한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념우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남북의 동계스포츠 우표들을 살펴보니, 지금은 2년 간격으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예전에는 같은 해에 열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1992년 2월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동계올림픽이, 같은 해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후 1994년 제17회 동계올림픽이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리면서 현재와 같이 2년 간격 주기가 확립된 것이다. 다음 연재시간에는 북측의 동계스포츠 시설과 개최되고 있는 경기, 그리고 남측의 장애인 동계스포츠 우표를 소개하겠다. 📖

South Korea



1. 익스트림 스포츠 시리즈 (제3집) 4종 연쇄 / 2008.09.05.
2.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2종 연쇄 / 2010.02.12.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종 연쇄 / 2018.02.09.

1.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싸라예보84) 3종 시트렛 / 1983.08.20.
2. 제22차 소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4종 / 2014.02.07.

North Korea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영화 속 북한 이야기 20

협동농장 분조장이 된 도시 처녀의 혁신담 예술영화 <분조의 주인>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협동농장의 최소 단위 책임자 분조장

<분조의 주인>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11년 제작한 54분 길이의 예술영화이다. 단편소설 <안해의 성격>을 원작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시집온 소영이라는 새댁이 처음에는 농삿일도 서툴러서 마음 고생도 하지만 점차 모범적인 분조원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해 질 무렵 들판에서 협동농장원들이 분주하게 거름을 나르고 있다. 작업을 마치기에는 아직 해가 제법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인데, 작업을 중지시킨다니 무슨 일이 있는가. 의아해하는 반원들에게 분조장이 말한다. “어허, 오늘 저녁 텔레비에 ‘산울림’연극이 나오는 걸 모르는가. 모두 텔레비를 보러 가자고”하면서 작업을 마쳤다. 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산울림’의 주인공 석철을 따라 배우자고 다짐한다.





강삼이 분조장으로 있는 3분조에는 도시에서 시집온 소영이라는 새댁이 있었다. 협동농장 작업반 기술원인 문일의 아내였다. 소영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군대에 자원입대하였다가 문일을 만났고, 제대 후 문일을 따라 농촌으로 온 여성이었다. 농사는 분조 단위(10명)로 진행되었는데, 소영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농촌 일은 서툴렀다.

협동농장원들은 소영을 위해 신경을 써주었다. 소영이 일하는 3분조는 퇴비 거름 경쟁에서 3등을 하였다. 강삼 분조장은 더욱 열심히 하자면서, 작업량이 미달한 사람을 부르는데, 소영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누가 봐도 거름이 모자랐는데, 문일이 분조장에게 부탁한 덕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남편을 설득했다. 자기가 채우지 못한 분량만큼의 퇴비를 지고는 몰래 자신의 분조가 맡은 밭에 옮겨놓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밭에 거름을 옮겨놓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한편 강삼 분조장은 농업대학 진학을 꿈꾸는 딸 윤이를 문일에게 부탁하였다. 공부를 도와주라고

하였고, 문일이 윤이의 공부 지도를 하였다. 문일이 윤이에게 '니탄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영이 자기도 공부하겠다고면서, 비료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퇴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소영

농장에서는 봄철 농사를 앞두고 더 많은 알곡 생산을 위해서는 퇴비를 더 많이 생산하자고 결의하였다. 소영이 손을 들었다. 소영은 효율성 높은 후민산비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강삼 분조장은 '후민산비료를 만들자는 제안은 좋다' 하지만, '핵심 재료인 니탄이 있는 곳이 설봉산 밑이고, 온통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분조 포전까지 날아올 수 없으니 그림에 떡'이라고 반대하였다. '혹시 오솔길을 내고, 소밭이로 나른다 쳐도 길이 험해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포기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소영은 퇴비 수십 톤과 맞먹을 후민산 비

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소영의 의견은 협동농장 전체 문제로 제기되었다. 소영은 군인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무동력삭도를 제안하였다. 협동농장에서도 소영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소영이 제기한 무동력 관성 삭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후민산비료를 추진하던 중 분조장 강삼이 아침 작업을 지시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급성중수염이었다. 강삼 분조장은 응급차에 실려 가면서 '분조일지'를 소영에게 맡겼다. 임시 분조장이 된 소영은 협동농장 사람들과 힘을 모아 삭도건설을 위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분조장의 말대로 문제가 많았다. 기동을 세우는 것부터 이런 저런 문제가 산적했다. 소영은 기동을 세우는 문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세워두었던 임시 전주대(전봇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소영이 군대에 있을 때의 경험과 협동농장원들의 경험을 살리면서 하나씩 해결 해 나갔다. 마침내 삭도가 완성되었다. 병원에서 입원하였던 강삼분조장은 퇴원하고 돌아와 짧은 기간 동안 달라진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소영이야말로 산올림의 석철이라고 칭찬하였다.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북한의 농업정책은 김정은 체제 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겪었다. 국가의 공급 기능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식량 배급이 중단되는 미공급이 있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일상의 변화도 컸다. 경제 공급 정책이 달라졌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이중곡가제를 폐지하고, 임금과 가격을 현실화하였다. 이후 식량증산을 위한 고민 끝에 농업생산량에 대한 정

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농업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2012년의 '6·28방침'이었다. '6·28방침'은 생산 단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명에서 25명의 분조를 더 작은 단위인 3명에서 5명 단위의 포전책임담당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외형적으로는 공동생산 체제를 유지하지만, 생산 단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성을 높인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에 따른 분배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돌아오는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목표생산량 초과분을 국가와 농민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분배에 대한 책임성은 높였다. 제한적이지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였는데, 농업개발구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4개가 지정되었다. '함남 북청농업개발구'는 과수 및 과일종합가공과 축산업, '함북 어랑농업개발구'는 농축산기지와 농업



과학연구단지, ‘평북 속천농업구’는 식량 생산을, ‘황남(황해남도) 강령국제녹색시험개발구’는 유기 농업과 생태관광을 주제로 한 개발이었다.

식량생산의 핵심 일꾼 분조원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쌀을 비롯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도 식량 증가의 한 원인이었지만 자체적으로 농업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농업관리체계로서 협동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자 관리체제를 개선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식량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식량은 매년 6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센티브 도입과 최소 생산단위인 분조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2월 있었던 ‘전국 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인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통해 농업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흙에 치는 보약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는 효과성이 높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흙보산비료 생산에 힘을 쏟으며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고 하면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업생산의 주인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입니다”고 하면서, “분조는 농촌경리 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말단단위입니다.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라며 분조를 핵심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최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견학 코스에 넣었다. 첨단 시설을 통한 생산 증가를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구에 농업을 추가함으로써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것도 농업생산량을 늘리려는 조치의 하나이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북사회문화 및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비시에서 만난 한국전쟁사 전문가 장 플르티에

박선영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여성위원장



유난히 햇살이 화창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의 어느 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프랑스협의회 회원들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앙리 장페르 씨의 조카 장 프랑스와 플르티에 작가의 집을 방문했다. 온천수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시 정권'으로 유명한 프랑스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 비시(Vichy)에 거주하고 있는 플르티에 작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한국전쟁과 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집필 중인 세 번째 저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플르티에 작가의 삼촌 앙리 장페르는 1950년 유엔군 프랑스대대가 참전군을 모집했을 때, 군인이었

던 아버지의 피를 받아 당연히 참전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한 달여 간의 여정 끝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모두 살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동지애, 형제애로 뭉쳐 힘든 전투들을 치렀다. 당시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프랑스 군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미군은 지평리 전투(미군과 프랑스 대대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1951년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한 방어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프랑스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앙리 장페르는 지평리 전투에서 용맹

하게 싸워 승리를 거뒀지만, 전신 80%의 부상을 입어 프랑스로 귀환하였고, 1977년 작고하였다.

‘삼촌의 전쟁’, 조국의 평생연구과제가 되다

한편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삼촌에게 한국전쟁 이야기를 듣고 자란 조카 플르티에 씨는 삼촌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젊은 날의 관심이 온통 한국전쟁에 쏠리게 되어, 프랑스에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유품들을 수집하면서 한국전쟁사 전문가가 되었다. 이번에 출판되는 책 또한 한국전쟁 당시 살아 돌아온 군인들로부터 전해 받은 5천여 점의 유품들을 정리하여 집필한 것으로 백과사전식의 생생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플르티에 씨에 따르면 앙리 삼촌이 한국에서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기치 않은 혹독한 추위였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전투를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만나며 평생을 보내게 된다.

플르티에 작가는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몽클라르 장군과 군인들의 이야기, 한국전쟁 발발 배경, 전투 상황, 역사적 사건 등을 당시 자료들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20여 년간 꿈꿔온 한국전쟁사 박물관을 죽기 전에는 꼭 만들어 프랑스에 한국전쟁을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르티에 작가는 삼촌 대신 한국에 두 번이나 초청되어 방문하면서, ‘삼촌이 살아계셔서 지금의 한국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느꼈다고 한다.

플르티에 작가는 서재로 이동해 한국에 관한 책, 자료, 전쟁 당시 삼촌이 작가의 부친과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보여주며, 삼촌이 싸웠던 지평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했던 순간의 감정을 아직도 느낀다고 전했다. 그의 손녀도 한국에 늘 심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 태극기 문양이 들어간 작은 유리병을 만들어 주었다며 흐뭇해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 될 것

3,000여 명의 프랑스군이 참전했던 한국전쟁, 그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플르티에 작가는 그동안 프랑스 군인들이 자원입대로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한국전쟁처럼 평생을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전쟁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죽은 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길 바란다고 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정이 있던 나라, 힘들었지만 나눔을 알았던 민족, 아마 이런 민족을 위한 전쟁이었기에 그만큼 애절하고 맘 아팠던 것이 아닐까. 그들은 영원히 한국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한국에서 묻히고 싶어한다.

플르티에 작가를 만나고 돌아오며, 민화협 프랑스 협의회 회원들은 오는 10월 개최될 강연회를 통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각자 발걸음을 옮겼다. 🇫🇷

1. 한국전쟁 전문가 장 플르티에 작가(맨 오른쪽)와 만난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회원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박선영
2. 지평리 전투에 참가했던 앙리 장페르씨가 전쟁 당시 플르티에 작가의 부친에게 보낸 서신. ©박선영

박선영은 민화협 프랑스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나의꿈국제재단’ 프랑스 지부장,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교장, 프랑스 리옹생트마리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프랑스 시그마, 이지마 그랑제콜, 클레르몽오베르뉴 대학교 한국어 강사, <KBS 한민족하나라도 라디오> 프랑스 통신원 등을 맡고 있다. 2020년 해외 교육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반도 정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김해민 민화협1020통일공감기재단·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년

지난 4월 14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2022 민화협 제2차 통일 정책포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정세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개최한 간담회는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잡다단한 한반도 정세 및 국제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및 대북정책연구 현황을 평가하고 민화협 정책위, 6·15남측위 정책위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바람직한 민간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민화협에는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김성민 정책위원장, 정대진 정치외교안보분과 간사(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조한범 정치외교안보분과 정책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희 정치외교안보분과 정책위원(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성경 사회문화분과 정책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영선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교수) 등이 참석했고, 6·15남측위 정책위에서는 한충목 상임대표(정책위원장),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최은아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대진 교수는 선거라는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국정 운영이라는 정책의 계절이 왔으며, 차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북한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잡한 변수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대처로 유엔 대북제재 추가 결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한국에서는 정권교체라는 전환기가 펼쳐지는 현시점이 북한에는 기회의 창이라며, 지정학과 지경학적으로 한반도

의 전운과 위기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 정부는 대북 제안을 할 때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연계해 가야 하는지, 비핵화 성과 도출 이전이라도 관련 논의를 병행해 가야 하는지에 따른 '연계론의 덧과 병행론의 뉘'을 무시하 건널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과정만 놓고 보면 신정부는 대북 강경모드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나아가고 있으니, 신정부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으로 이 강물을 역행하지 않을 역사적 책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손정목 부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신흥국 진영으로 나누게 하는 세계질서 전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북·중·러에 대한 포위압박정책을 통해 편 가르기하는 신 냉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고, 한반도는 미국의 신 냉전 전략에 따라 높은 수준의 대결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과제 및 통일운동의 방향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음을 받아들여 미국과 자주적 입장에 선 관계 재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적대관계가 아닌 화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점증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미 패권만을 위한 종속적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한범 정책위원은 푸틴과 김여정의 핵 공격 시작과 관련된 언급 때문에 한국·대만·일본이 핵에 대한 동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한반도 평화론에 입각해 견인해 내는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6·15남측위 정책위원회는 4월 14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취 정책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평화체제라는 생존적 등가성으로 설정해 북한과 거래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윤석열 정부 또한 과거의 기능주의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설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관여와 평화 정책의 전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15남측위 류경완 정책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며,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고 세계가 다자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만 정책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국 정치가 안정되는 상황이 되면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와 남북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성경 정책위원은 팬데믹과 같은 인류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안갯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계층·계급·부동산과 같은 체감 가능한 이야기들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은아 정책위원은 6·15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미래의 통일상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폐될 수 없는 역사, 발굴·투쟁·연대의 기록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 결정으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1년 발행된 중·고등학교 필수과목 사회과 교과서, 2022년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용 사회과선택과목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을 삭제하고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서술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일조선인과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이 부정하는 식민지의 역사, 강제연행,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실규명·투쟁,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연대의 역사를 나타내는 용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 용어를 소거하려는 것은 해방 후 쌓아 올린 그 노력까지

부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화협에 의해 국내 발간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자료집』은 일본의 부정에 대한 경고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은 1972년 일본의 시민사회와 재일조선인이 결성해 오키나와, 홋카이도 지역의 피해를 조사했다. 1990년 이후 보다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펼치면서 1993년까지 일본의 16개 도부현의 총 20개의 조사단이 조직되었다. 각 지역의 조사단은 지역별로 활동하면서 정리하여 『조선인강제연행조사사의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조사단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도 1년에 한 번은 지역을 옮기면서 교류회를 열었다. 이 교류회를 위한 자료집이 본 『조선

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전국교류집회 자료집』시리즈이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전국교류집회 자료집』시리즈는 자료집 1권부터 20권까지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권의 활동자료집이다.

본 자료집들은 조선인 강제연행노동자의 피해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제5권, 12권), 식민지 지배책임(제6권, 8권, 9권, 10권), 관동대지진의 문제(제15집), 재일 조선인 문제(제18집), 역사교과서 문제(제11권, 제17권) 그리고 유골 문제 등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의 폭력을 모두 담고 있다.

자료집 제1권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전국교류집회 자료집』은 1992년 1월 20일 있었던 전국교류집회 각 지역 활동보고와 학술발표문, 모토오카 쇼지 의원의 강제연행에 대한 국회보고 내용 등이 실려있어 당시의 조사상황, 운동상황 등을 잘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제2권과 제3권은 각 지역의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강제연행관련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들을 수집하여 편철해 놓은 것이다. 제4권과 제7권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초기 즉, 1970년대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들 4권, 7권, 2권 3권은 1970년대부터 1992년까지 발굴된 강제연행의 실태를 신문기사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다.

불의를 기록한 역사의 눈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다룬 자료집으로는 1993년 발간한 제5권과 제12권이 있다. 제5권에는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처음 조사한 오키나와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에 관한 조사 내용이 실려있다. 또 유엔에서의 위안부 강제연행문제의 개략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중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관련 신문기사도 같이 편집되어 있어,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집이다.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군위안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인 「과거의 큰 죄를 역사의 뒤안길에 영원이 묻으려고 하는 공모결탁을 규탄한다」를 실고 있다. 제12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와 주장』1998.7.31.)은 보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다룬 자료집으로는 자료집 6권(『조선 식민지 지배는 위법』1993.7.25.)과 8권(『유엔결의와 식민지 지배, 강제연행』1995.5.), 9권(『1905년 한국보호

조약에 관한 논문』1995.4.10.), 10권(『전후 50년 새로운 길을 위하여』1996.4.10.) 등이 있다.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집으로 제11권(『추궁받는 전쟁 책임』1997.3.10.)은 '검정 교과서 비판과 반복되는 망언'이라는 특집호다. 제13권(『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존엄회복』1998.8.15.)은 1998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치바시에서 열린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제6회 전국교류(치바)집회에서 한 심포지엄과 분과회에서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강제연행이란 무엇인가, 미래를 향한 역사교육'이란 제목으로 열렸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수가 강제연행 정책에 대해 사료를 중심으로 강연했고, 요시다 유키타(吉田裕)는 전쟁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실고 있다.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희생을 다룬 자료집은 제15권(『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80주년-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와 조사보고』2003.11.30.)으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80주년 기념 자료집으로 관동대지진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규제요구 사건의 기록을 실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다룬 자료집은 제18권(『재일조선인사(1905년조약 100년-역사적 사실과 법적시점에서 검증한다)』2005.11.12.)이다. 본 자료집은 재일조선인사 100년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다. 강성은 교수의 1905년 을사조약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교수의 1905년 조약의 강제성, 도츠카 에츠로(戸塚悦郎) 변호사의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본 정부 책임을 논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유골문제를 다룬 자료집은 제16권, 17권, 19권, 20권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성립된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연행 희생자의 유골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유골조사, 봉환문제를 해결 논의를 위한 '한일 유골조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군인군속 유골, 민간노무자 유골 봉환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정부 간의 움직임 아래, 한국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적극 협조하면서 정보 교환 등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산된 보고서가 다음 일련의 자료집이다. 【자료집 16 전후 60년 희생자를 유족에게】는 한국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법」과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일본 내 각 지역의 조선인 유골의 실태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집이다. 【자료집 17 지금 강제연행 희생자의 유골은】은 한국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유족이 있는 유골에 관한 조사보고가 실려있다. 그리고 후쿠오카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중 희생자에

대한 명부가 실려 있다. 【자료집 19 지금 요구되는 진정한 대응】은 2005년 유골조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골조사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들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한일 국회 관련 자료도 수집되어 실려있다. 각 지역에서 보도한 유골발굴, 봉환 기사들도 일자별, 지역별로 조사 정리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집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유골합의, 한국의 위원회와 일본의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연대와 협조 등으로 유골조사 및 봉환은 순조로울 것만 같았다. 하지

만, 2006년 북쪽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분위기가 냉각되었다. 일본정부는 북쪽 유족 입국을 거부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발간한 것이 【자료집 20 유족의 고통을 안으며】이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은 공화국의 유족입국 거부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북측 유족의 입장문도 실었다. 미사일 발사와 과거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계해서 유족 입국을 거부하는 일본의 행태는 '반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신문들에서도 일본정부의 조치에 비판적이었고, 한국의

각 권 제목 및 발간상황

권호	제목	발간시기
제1권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전국교류집회 자료집	1992.1
제2권	각지의 조사단의 활동-신문보도의 정리	1992.4
제3권	조사단전국연락협의회 중앙본부의 활동 -보도집	1992.4
제4권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1970년대의 활동 복각판	1992.5
제5권	조선인'위안부'강제연행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1992.12
제6권	조선식민지지배는 위법-1905년조약해설	1993.7
제7권	조사단전국연락협의회 중앙본부이 활동 -1994.4	1994.5
제8권	유엔과 식민지지배 강제연행-1905년 조약	1995.5
제9권	1905년 한국보호조약에 관한 논문	1995.5
제10권	전후 50년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1996.4
제11권	추궁받는 전쟁책임	1997.3
제12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사와 주장	1998.7
제13권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존엄회복	1998.8
제14권	조선인강제연행, 강제노동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와 조사보고	2002.12
제15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 80주년-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와 조사보고	2003.11
제16권	전후 60년 희생자를 유족에게	2005.1
제17권	지금 강제연행희생자의 유족은	2005.11
제18권	재일조선이사(1905년조약)100년-역사적사실과 법적시점에서 검증한다.	2005.11
제19권	지금 요구되는 진정한 대응	2006.1
제20권	유족이 고통을 안으면서	2007.1



2019년 5월 31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비 건립 기념 법회가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역시 일본의 유족입국 거부에 비판적이었다. 이때 일어난 다각적인 일들을 모아 놓은 자료집으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편집해 놓았다.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자료집』의 사료적 가치

일본 패전 후, 전쟁 상대국이었던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문제와는 달리 은폐되었던 조선인의 문제가 1972년부터 10여 년간 활동한 조사단이 5개의 지역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이 재일조선인의 일본 내에서의 역사적 위치,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일본시민과 재일조선인의 연대운동은 1980년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1980년대는 조사단이라는 명목으로는 활동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조사단에 합류하여 활동하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진상조사와 저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야마다 쇼지 교수 등

은 강제연행 문제의 최고 전문가로 자리 잡는 등 1980년대는 1970년대의 조사단 활동에 깊이를 더했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에 다시 부활한 조사단은 소련붕괴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수교 무드, 한국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그리고 방일, 한국의 민주화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가 맞물려 있다고 평가된다. 1990년대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은 한국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연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자료집』은 그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

한혜인은 역사디자인연구소 연구원이다. 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역사지역문화학과에서 일본근현대사를 전공했다. 일본 전사체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사할린 한인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역사 갈등 문제를 다루어왔다. 현재는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피식민 관점에서 역사 서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청년의 역동성과 상상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주역이 되길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과장

지난 4월 12일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사장 방인성, 북민협)는 <통일부 장관과 인도협력 청년활동가의 대화>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12월 14일에 열린 <Next Level: 통일부 장관x2030대북협력활동가 간담회> 후속 사업으로,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22년 봄에 남북회담본부로 2030대 대북협력활동가를 초청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장관과 인도협력 청년활동가의 대화> 행사에는 30명의 북민협 회원단체 소속 2030활동가, 방인성 이사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통일부에서는 이인영 장관과 인도협력국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벚꽃이 만개한 남북회담본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이인영 장관은 청년 활동가와 담소를 나누며 본부 주요 장소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별히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락사무소 통신실은 남북교류, 인도적 협력 논의와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 확인 등 남북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유선전화기와 팩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시에는 전화기를 통한 구두로 소통하되 공식성을 띠는 사안에 대해서는 팩스로 연락한다.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통신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식 채널로써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과 2030활동가 간 대화는 이인영 장관과 방인성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방인성 이사장은 젊은 활동가들을 귀한 자리에서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문제를 이야기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민협 청년활동가들과 남북회담본부 산책로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통일부



행사를 마친 뒤 단체사진 ©통일부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방 이사장은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청년들이 민족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열리면 청년들이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능력을 발휘해 남북문제를 풀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장관은 남북회담본부에 찾은 청년활동가들을 환영했다. 장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두고 ‘헤어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끝이 곧,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청년활동가의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월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청년인턴제 지원과 같은 정책들을 국회 차원에서 더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의 첫 주제는 인도적 지원 협력의 지속성이었다. 장한우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차장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 정책,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겠다는 기조는 지난 두 진보 정부와 두 보수 정부 모두 동의해왔으며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을 봐도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되, 인도적 지원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지난 남북관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도적 대북 협력사업 만큼은 민간이 가장 먼저 나섰고, 그 흐름 속에 남북당국 간 교류가 원활히 풀려졌던 적이 많았다. 이 장관은 “당선 자체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제타격과 같은 과격한 주장도 했지만 인도주의적 협력만큼은 정치군사적 문제에서 벗어나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기조를 실천으로 꾸준히

히 옮긴다면 새로운 남북관계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 협력 분야에 있는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강다정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교무는 청년시절 이인영 장관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후배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장관은 “2000년대 들어서면 통일이 될 줄 알았다”며, “남북관계 부침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살아생전 통일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밝혔다. 이제 본인 역할은 젊은 세대들이 통일 주역이 되도록 평화의 앞마당을 내주고 통일을 디자인해줄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평화만큼 통일도 잊지 않기”를 강조했다. 과거 본인 세대에서는 통일이 당위적이었다면 요세 젊은 세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으며, “그 현상이 강요된 당위가 아닌 평화를 먼저 이룬 뒤 통일문제를 지혜롭게 생각해보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청년들의 상상력과 함께 통일이 내 삶의 변화와 결부되도록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참석자 중 가장 젊은 활동가의 소감을 들었다. 1999년생인 서가영 국제푸른나무 매니저는 인턴 9개월 차로 활동 중이다. 서 매니저는 최근 국제푸른나무에서 진행했던 평화를 소재로 한 토크콘서트를 소개했는데, 별 기대가 없었던 친구들이 행사 참여 후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고 전했다. 서 매니저는 청년들에게 ‘한’ 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통일부와 북한협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해보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편집부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민화협과 거래의숲이 함께 했다. 민화협과 거래의숲은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 주관하여 6일 오전 11시 30분 코엑스 3층 307B 회의실에서 국제토론회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을 개최했다.

온라인 줌과 현장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산림향폐화 방지를 위해 동북아 각국이 추진해 온 국가별 정책을 살펴보고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북아 산림복구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애초 토론회는 한국, 북한, 독일, 중국 등이 발표 및 토론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측이 불참을 통보해 대신

몽골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연구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용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단장의 축사, 김재현 거래의숲 공동대표(전 산림청장), 최형모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의 인사말 이후 각국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독일을 대표하여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이 '산림협력-한스자이델재단 사례와 협력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현아 수석연구원은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북측과의 지식공유사업을 소개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을 대표하여 박경석 산림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산림 분야 활동 및 국제협력'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산림과학원에서





1. 이운식 민주평통 전문위원이 과거 남북 산림협력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 행사를 마치고 함께 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염규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국장, 정찬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임업연구관, 박경석 산림경영전략연구소 소장, 이용권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단장, 유병오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임업연구관.
3. 한스자이델재단 최현아 수석연구원의 발제.

근무하며 거래의숲이 진행해온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를 기획하기도 했던 박 소장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림정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대표해서는 박영호 중국 훈춘시 농업농촌국 특산과 농업기술 보급연구원이 '중국 길림성 동부지구 야생 해당화의 시구 생태 보호 의의 및 가능성 식품 개발의 응용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당화를 통한 기름 등 가능성 식품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이러한 시도가 중국뿐 아니라 각국에서 축적된다면 식량 상황 개선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는 한몽 그린벨트사업단의 간조릭(Ganzorig Myagmar) 부단장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간조릭 부단장은 한몽 그린벨트사업이 사막화 방지

와 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의 모범사례라 소개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국가 간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발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운식 민주평통 일자문화의 전문위원(전 거래의숲 사무처장), 리종식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부서기장, 정찬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임업연구관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록 북한의 불참으로 남북이 함께 만나지는 못했으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나아가 산림 및 환경보전을 위한 초국경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민화협과 거래의숲은 오는 5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FPPP)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돌봄 사회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

남북한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박수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남한에 《백세 인생》이 있다면 북한에는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가 있다. 2014년 작곡된 이 곡은 노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노래하며 최근까지도 주요 공연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노인이 있을까?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251만 8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9.75%로, 평균 기대수명은 71.65세(여성 75.74세, 남성 67.79세)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인구 15.92%의 고령화 비율을 가지고 있다.(2021년 7월 기준)

노동력이 경제력이 되는 전통적 경제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 당국은 언제나 인구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2004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왔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또한 하나의 체제선전의 일환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로 방지되고 죽어나가는 노인이 속출하지만’, ‘사회주의의 품 안에서 조선의 노인들은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인구고령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의료수준과 사회적 시책이 발전된 국가라는 더할나위 없는 증거’라는 사고의 흐름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그저 늙어가기만 하지 않는다. 다르게 기능한다. 한 국가의 복지재정은 유한하다. 노인 인구는 통일정책에서도 사회보장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할 계층이고, 대북지원정책에서의 중증 취약계층이며, 향후 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의제를 접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불평등은 시장과 복지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결과이며, 생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다. 노후의 불평등은 개인의 생애에 걸친 경제적 상태가 누적된 결과이자 연금 등 국가 복지의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압축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노인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 제도는 곧 국가가 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서 ‘노인’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와 특징을 이해하는 작업 역시 수반되어야 했다.

북한에서 노인이란

북한에서 노인의 법적 정의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연로 보장자들을 일컫는다. 국제적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남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 군사 분야를 제외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주제로 신진학자들의 논문 공모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의 노동법령은 노인을 연로한 노동자 및 사무원으로 규정했고, 사회주의 헌법은 ‘노쇠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늙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대한 정의 또한 남다르다. 북한에서는 사람의 나이를 생리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로 구분해 판단하며, 이 중에서도 사회적 나이는 사람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 공헌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인과는 달리, 몸은 비록 늙었으나 혁명과 건설을 통해 단련된 세대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계속 빛내려는 요구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어라 호명되는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늙은이’라는 표현은 ‘젊은이’, ‘어린이’ 등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늙은이’는 비속어가 아니며, ‘로인’과 혼용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언어다. 다만 이는 문어체 표현이고, 흔히 ‘아바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네 ‘어르신’과 유사한 용법일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과학적으로 연령 개념을 부여한 표현으로는 ‘년로자(年老者)’가 있다. 노년계층을 호명하는 단어들은 주로 로인과 늙은이지만, 로장, 늙으신네, 로인님, 로인장도 유의어로서 통용되며, 신문류에서는 ‘새 세대’와의 대칭적 단어로서 ‘로 세대’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노인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가 많

은 늙은 사람’이지만, 노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력의 유무와 관련되어있다.

북한은 2003년 4월 30일 ‘조선년로자방조협회’(현재 조선년로자보호련맹)를, 2007년에는 「년로자보호기금」을 설립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제정된 「년로자보호법」은 노인에 대한 북한 최초의 독립법령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연로한 노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이후 북한은 위락시설, 복지시설,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집권 첫해 약속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과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원이나 영예군인 휴양시설 건설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2017년 7월에 기하여 각 도에 1개 이상의 노인휴양시설을 완공했다. 최소한의 돌봄 인프라라는 마련이 되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론과 발전

20세기 중반까지, 각 국가의 복지 정책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노년과 건강, 아동을 보살피고 빈곤을 방지할 책임을 집단으로 진다는 구빈법적 사고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복지와 빈곤에 대한

논쟁에서 개인적인 책임은 무엇보다 노동력과 가족에 준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을 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들을 물질 또는 돌봄으로 지원할 최우선적 책임을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노인 집단은 흔히 돈 문제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이렇듯 개인적 책임 또는 가족적 책임 하에 놓여 있었던 ‘돌봄’을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시킨 것은 1980년대 페미니스트 학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Held, Kittay, Tronto, Engster 등의 주요 연구자를 통해 돌봄의 윤리와 관계, 가치와 정치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성찰이 더해졌다. ‘돌봄(care)’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자 여성 특정한 윤리와 노동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사회의 발전과 일련의 성찰과정을 통해 ‘가정, 시장, 지역공동체, 국가 안에서 인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활동, 보다 넓은 범주의 ‘재생산 노동’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거쳐왔다.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의 ‘돌봄’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돌봄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단일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한국 역시 ‘돌봄’이라는 개념은 영문 ‘care’에 대한 번역이지만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전적으로 돌봄은 보살피 부양하거나 수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국어적 어원으로는 보호적이고 수동적인 보살핌의 의미다. 한국에서 돌봄이 정책의제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돌봄이 국가의 주

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보다 한국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돌봄 모델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돌봄 서비스’는 위의 돌봄 개념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독립적이고 보편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제반 활동과 서비스를 통칭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인돌봄서비스(Adult Social Care)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뜻하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 중에서도 Aging in place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북한에서는 ‘돌봄’을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Care에 가장 인접하는 개념으로 ‘보살핌’을 들 수 있고, ‘돌보다’ 또는 ‘보살피다’라는 동사형을 기본으로 ‘원호하다, 또는 ‘보양하다’ 등의 유의적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돌봄’의 사회적, 문화적 위상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사람들을 남의 집 ‘아이보개’로 배치하는 경향” 즉 아동에 대한 돌봄을 노인이나 기타 약자에게 일임함으로써 돌봄의 수혜자와 기여자를 한 데 묶어내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관점이다. 다만 사회보장보다 보훈 분야에 돌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낳은 특수성일 것이다. 북한의 근로자보호법 제5조 공로 있는 근로자의 특별보호원칙에서는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근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도록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교통에는 영예군인이나 참전노병을 위한 우대석은 있으나 노약자석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평범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도덕'에 맡기는 것이다.

사회에는 도덕의 언어가 상존한다. 북한에서 '례의도덕'이 사람 사이의 지켜야 할 도리, 즉 규범의 영역이라 한다면, '도덕의리'는 희생과 헌신을 중용하는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한다. 북한에서 '돌봄'의 영역, 그중에서도 노인돌봄의 영역은 바로 이 '례의도덕'과 '도덕의리'의 기반으로 무장되어 있다. 노동신문에서 '년로자' 보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사는 '미담'의 영역으로, ㉠년로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시책을 받은 일반인이 사회주의제도에 감사하는 찬양의 유형 ㉡보건의료일꾼이나 기업소 노동자들이 영예군인가족과 지역 내의 연로자를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운동 유형, ㉢은퇴 후 년로보장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근로현장에 뛰어들거나 후학을 지도하는 등의 후방지원을 하는 '돌아온 혁신자'로서의 유형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돌봄의 영역을 충족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뭉 없는 자들의 뭉’을 위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

현실적인 관점에서, 남북이 서로 간의 연대 안에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돌봄’은 일종의 호명어가 가까웠다. 연구 초반에 구상했던 돌봄정책과 제도들은 심층면담을 진행할수록 현실 불가능한 모델이 되어갔다. 면담을 통해 만났던 북한이탈주민 노인들은 그저 경제적 곤란으로 일축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 평양 출신의 노인은 타 도시로 이

동해 일을 하는 것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지방의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은 단순히 거주지역을 옮겨 일하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기도 한다. 스스로 재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증이나 조건을 갖춘 노인은 정년을 앞당겨서라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만, 생계를 꾸려나갈 기술이 없는 노인들은 은퇴 시기를 늦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여성노인은 장마당에 앉아 가족을 먹여살릴 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대체로 남성노인은 본인 집에 있는 집기 등을 내다 팔며 메뚜기처럼 장마당을 오가고 있다. 남북한의 돌봄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북한 노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연구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시기의 도래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경로 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돌봄이라는 이름을 통해 남북관계의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돌봄을 장려하는 문화는 혈족 문화에 바탕을 둔 가족 문화나 보편적인 사회연대가 강조되는 사회구성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한국과 북한의 경우 가족부양 문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여전히 세가 크지만, 남북 모두 사회적 수준의 ‘돌봄’이 취약하다는 것은 슬픈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Noddings는 돌본다는 것은 사람과 함께 느낀다. 즉 공감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고령화 문제를 포함하여 돌봄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돕는다는 기본적인 명제 하에 궁극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남은 동질성의 최소 공감수는 서로에게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닐까. 🌈



기차 타고 금강산 가던 시절 만나는 철원 민통선 마을 평화기행②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1,129일간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온 국토가 폐해졌고, 그 유명한 '철의 삼각지대 전투(철원, 김화, 평강)'를 거치면서 철원처럼 김화, 평강도 신기루처럼 도시가 사라졌다. 정전협정 이후 철원과 김화 일부는 남한에 남게 되고 평강은 북한에 남게 된다. 김화는 철원과 마찬가지로 곡창지대로 부자가 많았던 곳이다. 김화(현 철원)의 와수리(瓦水里)는 기와집이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유곡리를 거쳐 도창리 검문소를 빠져나오면 비로소 김화에 접어든다. 김화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으며 남쪽 김화는 1963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김화지역의 주요 전투로는 오성산 아래 저격능선 전투가 있다. 김화지역의 대표적 민통선 마을은 생창리가 있다. 전쟁

시기 모두 파괴된 관계로 마을은 없어졌으나 1970년 10월 재향군인 100세대를 중심으로 '재건촌' 생창리가 다시 만들어졌다. 생창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민통선 마을이었으나 민통선이 북상한 관계로 지금은 민통선 마을에서 해제되었다. 초기 생창리는 2가구가 한집에 살고, 대문이 북쪽에 있는 북향집이다. 재건촌, 향군촌, 통일촌으로 불리는 민통선 마을의 공통적 특징이다. 생창리에도 지뢰 피해자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도 있다. 고엽제는 월남전에서 미군에 의해 뿌려졌으며, 1968년 김신조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울진, 삼척 간첩 사건 등을 계기로 남방한계선 일대 북한군 예상 침투로에 해당하는 철원군과 연천군에 집중

적으로 살포되었다. 에이전트오렌지와 에이전트블루 계열의 고엽제가 주로 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통선 지역 주민들도 고엽제에 노출되어 민간인 고엽제 환자도 있다. 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인의 피해 보상은 빠져있는 상태다.

에이전트 오렌지와 한국전쟁

생창리에는 몇 년 전 DMZ생태평화공원이 생겼다. 직접 더 가까워서 DMZ를 탐방할 수 있으며, 공원 탐방은 사전 예약 후 마을회관 옆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서 안내를 받아 반드시 직원의 동행하에 가능하다. 제1코스 십자탑 탐방로는 약 6.4km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성재산 580m 높이에 설치된 십자탑까지 걸어가서 DMZ 너머 오성산(1,062m)을 바라볼 수 있다. 오성산은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만든 지하벙커(일명 지하 만리장성)가 수없이 많다. 성재산 십자탑 정상에서는 북한 초소 및 북한군의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십자탑까지 걸어가면서 한국전쟁 이후 자연스럽게 복원된 자연생태와 지뢰생김을 따라 트래킹을 즐길 수 있다. 성재산 정상 십자탑은 북한 오성산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볼 수 있도록 3사단에서 만든 십자가 선전탑이었으나 지금은 점등은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십자탑에서는 DMZ가 한눈에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이고 앞의 웅장한 오성산이 자리 잡고 있다.

제2코스 용양보 탐방로는 계용산 아래 용양리에 있으며 용양보는 화강에 있는 작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보'이다. 화강은 과거에 남대천이었으나 옛날 문헌에 화강으로 표기되는 관계로 최근에 이름을 바꾸었다. 용양보 철도교각 위로 일제 강점기 때 금

십자탑코스 탐방로. 멀리 3사단에서 설치한 크리스마스 점등용 십자탑과 DMZ 너머 북한의 오성산이 보인다. ©이영동

강산관광 성수기 때는 15량의 객차를 연결한 전기 열차가 지나갔고 야간 침대열차도 지나갔다. 지금은 철로는 철거되고 교각만 남아있는데 DMZ 사진전에 많이 등장하며, 강 위를 지나가는 나무로 만든 출렁다리 순찰로가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선 무너지기 직전의 낡은 나무출렁다리에 앉은 가마우지 새떼들이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민통선 안에 있는 관계로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어 자연적인 습지형 호수로 생태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인근 압정교는 1930년대 세워진 다리로 과거 김화, 평강, 금성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하였다. 지금은 낡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바로 옆에 새로운 압정교로 군용 차량과 일부 주민들의 차량만 간혹 지나가고 있다. 언젠가는 수많은 차량이 통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 용양보 코스는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김화 생창리 일대에서는 400년 전 병자호란 때 조선군과 청군, 70년 전 한국전쟁 때 한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병자호란 때 평안도 근왕병으로 참전한 홍명구 관찰사와 유림 병마절도사는 남한산성을 향하던 중 이곳에서 몽골 출신으로 구성된 청나라 군사와 조우했는데, 군사적 이점으로 홍명구 관찰사는 탐곡평야 일대에 진을 설치했고 유림 절도사는 백전(栢田:갓나무숲)에 진을 설치했다. 1937년 1월 28일 3천 6백여 명의 적군 공격이 거세지자 산으로 진을 옮기라는 유림의 의견을 거절한 홍명구는 수많은 적을 물리치다 나중에는 협공을 받아 참패하고 홍명구도 전사한다. 반면 뾰뾰한 갓나무 숲에 진을 친 유림은 백



백한 숲을 이용해 청군의 기병과 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청군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 사격을 가해 청군을 크게 무찌른다. 이후 유럽은 화천을 거쳐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2월 3일 가평에서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철군한다. 두 사람은 근왕병 참전 직후부터 크고 작은 의견 충돌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홍명구 관찰사의 신도비에는 유럽 장군을 원망하는 글로 가득하다. 김화 백전의 승리는 병자호란 당시 수원 광교산 전투와 함께 8도 근왕병이 올린 2대 승전으로 남아있다. 홍명구와 함께 전사한 조선군 1,000명은 전골총에 합장되었으며 성재산 DMZ 내에 있다. 필자는 아직 한 번도 전골총을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방문하게 되면 간소하나마 술 한 잔 올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싶다.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과 승자 없는 전투

병자호란 후 1650년(효종1년) 홍명구를 기리는 사당으로 충렬사를 건립하여 충렬비가 세워졌으며, 유럽 장군의 대첩비는 조정이 아닌 김화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고 한참 후인 정조 때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는다. 1940년 김화 유럽들은 유럽 병마절도사를 충렬사에 합사하였으며 현재 충렬사에는 충렬비와 대첩비도 함께 나란히 있다. 생전 권원지간이었던 두 사람도 두 비가 함께 나란히 있는 것처럼 이제는 화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조선시대 금강산 그림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긴 진경산수화가 겸재 정선은 금강산을 가던 길에 병자호란 당시 승전을 기리며 희생당한 수많은 조선군을 위로하고자 1742년 화강백전이라는 한 폭의 그림을 남겼는데 ‘화강 인근 뽕뽕한 잣나무 숲에서의 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건설한 지하만리장성의 일부로 추측되는 굴. 병자호란 당시 유럽 장군이 진을 쳤던 곳에 있다. ©이병동



2

투 라는 뜻으로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한국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물자 중국군과 북한군은 연합군 폭격을 피해 지하에 장장 4천km에 달하는 ‘지하 만리장성’을 구축한다. 한국전쟁 당시 오성산을 둘러싼 대표적 전투는 저격능선전투가 있다. 미군이 아무리 네이팜탄을 쏟아부어도 중국군은 지하 만리장성에서 오뎅이처럼 일어나 아군을 괴롭혔다. 결국 우세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한국군은 영토의 일부만 탈취하고 전쟁이 끝나버린다. 냉정히 보면 무승부이나 서로 이긴 전쟁이라고 우긴다. 상호 승리를 주장하지만, 저격능선을 사수한 한국군이나, 오성산을 사수한 중국군이나 수많은 피해를 본 전투였다. 중국은 이 전투에서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상감령전역’으로 부르며 항미원조의 최고의 승전 중 하나로 선전하고 있다. 1956년 영화 ‘상감령’이 중국에서 개봉되었으며, 주제곡 ‘나의 조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주되었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도 연주되었다. 이 전투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한국에 유학 온 젊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상감령 전투를 알고 있느냐고 몇 번 물

어보았으나 요즘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관심이 멀어진 것인지, 학생들의 관심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다. 병자호란 때 유럽이 진을 쳤던 그 잣나무숲(栢田)은 지금은 잣나무가 없어졌지만, 내부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굴이 있다. 자연 동굴일 수도 있으나 필자의 추측으로는 중국군이 판 것으로 보는 지하 만리장성의 하나로 보인다. 생창리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용도를 모르고 있었고 어렸을 때 여름철에 들어가면 시원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흔적만 남은 금강산 가는 길

금강산 가던 길을 따라 동쪽으로 좀 더 나아가면 재건촌 마을 마현리에 도착한다. 마현리 주민들은 현재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해 13초소 철거를 주장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1959년 9월 추석날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호는 38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울진지역 이재민 66세대가 “강원도에는 북한으로부터 수복한 지역에 주인 없는 논밭이 널려있고, 이 논밭을 개간할 때까지 도와 군에서 각종 장비를 지급하고 곡식을 배급한다”는 홍창섭 강원도지사의 말만 믿고 3박 4일에 걸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허허벌판에 지뢰와 불발탄이었다. 마현리 도착 12일 만에 4·19혁명으로 도지사와 군수는 모두 교체되었고 지원 약속도 사라졌다. 이들은 천막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군인들의 눈을 피해 탄피를 수집해 팔아야 했고 밀주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뢰사고로 피해를 보기도 했던 이들은 민통선지역 토지분쟁으로 땅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되사야 했다. 이들의 절규는 홍찬선 시인의 <철원 울진촌>에 잘 나와 있다.

(중략)

높은 산 험한 고개 물결치듯 이어진 곳
가기만 하면 道와 軍에서 모두 도와준다는

홍창섭 도지사의 公約은 空約이 되고

소나무 껍질 칩뿌리 질경이 싹 뜯으며

맨손으로 잡초 무성한 황무지 일궈다

마음씨 고운 부대장

내 준 쌀로 막걸리 만들어 팔고

주운 탄피 애 등에 업고 배에 감춰 내다 팔고

지뢰 줍다 터져 팔다리 잘리면 팔자려니 하며(중략)

마현리에서는 승리전망대 안내소가 있고 이곳에서 출입 절차를 거쳐 북쪽에 위치한 승리전망대에 갈 수 있다. 승리전망대 바로 앞은 광삼평야가 있고 북한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과 하천 사교육장을 볼 수 있다. 이곳에 금강산 가는 광삼역이 있었으며 광삼평야를 지나 열차는 내륙으로 깊숙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당시 열차가 지나갔던 철길 흔적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광삼평야 뒤에는 아침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금강산으로 가던 여행객들이 이 마을에서 아침밥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침리에는 360가구 1천여 명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금강산 가던 철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기도 하다.

Hello, 북한

남북 함께 마스크 벗을 날은 언제... 보건 협력 서둘러야

연출/그림:Dimochoe





Curious book



북한의 건축 사람을 잇다 - 다시 보는 남북 교류 협력

책은 그동안 진행된 대표적인 남북 건설 협력사업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수로 지원, 금강산 관광,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이 잘 알려진 사업에서부터 천덕리 살림집 건립 등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까지 다루고 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고비들과 북한과의 협의 과정 등은 향후 북한 개발과 건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대북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남북 경험에 관심이 있는 이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금강산 온천이나 남북 신자가 함께 만든 북한의 봉수교회라든지 금강산 기술 유서집은 절 신계사 복원이라든지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여러 건축물들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책 후반부 싱가포르의 해외 개발 경험과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과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와 한반도 평화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남북한·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 보다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공감대' 결여 탓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co-prosperity network)'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이 결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며, 동북아의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public good)라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지혜, 협력, 포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책에서 저자들은 지정학적 변화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이 강대국 정치 지형을 정확히 짚고 적어도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변상욱 | 경향신문사 | 2022. 5



문흥호 외 | 한울 | 2022. 3

편집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엇갈리는 세계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인도적이며 비극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전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안보의 불확실성을 촉발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강대국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강대국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부르는 전쟁이 되곤 했다. 평화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음에도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책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이해 당사국들인 러시아, 미국, EU,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분석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원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 강대국들의 엇갈린 시선, 그리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정구연 외 | 코리아컨텐츠스 | 2022. 4

한일관계사

2022년은 한국 대선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이다. 책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세뿐 아니라 냉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가 비단 과거 식민지배라는 뼈아픈 과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게 악화된 이유를 찾기 위해 집필되었다. 책은 해방 이후 한일 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진전된 양국 간 상호 이해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을 한일관계의 변천사와 양국 국민 간 정서 변화를 차근차근 차분한 어조로 되짚어간다. 한국과 일본 국내 상황뿐 아니라 북한·중국·미국 등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 변화를 살피며 187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교류의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책을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미야 다다시 | 이원덕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2. 4

두물머리 아리랑

김동석
전 코레일 양평관리역장

“사랑이 고파 / 허기질 때면 / 그대여 우리 / 두물머리로 가자 /
거기는 / 먼 길 달려온 두 물 / 비로소 서로 만나 / 덥석 손잡고 /
허리부터 휘감고 뒹구는 곳 / 온갖 치레도 부끄러움도 /
소용돌이 물살에 띄우는 곳 / 손만 잡고 있어도 / 온몸 섞이는 곳.”



시인 이수호는 ‘양수리’에서 두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걱정을 이렇게 노래했다. 며칠 전 주말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나 나 홀로 두물머리(兩水里)를 찾았다. 느티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 파노라마처럼 사방으로 둘러쳐진 길게 늘어선 강과 산, 채 가지지 않은 물안개 자욱한 강가의 풍경은 한 폭의 수려한 동양화 그 자체였다. 경기 양평군의 두물머리는 북한의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 태백시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마을에서 광주시 남쪽면 귀여리 귀실마을을 잇던 이곳 나루터가 예전에는 남한강 최상류의 물길이 있는 강원 정선군과 충북 단양군, 그리고 물길의 종착지인 서울 독섬과 마포나루를 이어주던 마지막 정착지인 탓에 매우 번성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3년 두물머리 인근에 팔당댐이 완공되고 육로가 신설되자 나루터로서 기능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했다. 두물머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됨에 따라 어로 행위와 선박의 건조가 금지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운영되다가 완전히 중단됐다. 이곳은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강으로 늘어진 많은 수양버들, 수령이 400년 된 느티나무 등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영화나 TV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결혼기념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고, 사진 동호인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촬영장이기도 하다.

두 물줄기인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해 하나의 큰 물줄기 한강을 이루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상념에 젖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6·25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2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오랫동안 합류하지 못한 서로 다른 두 강처럼 무심히 흐르고 있다. 북한

강과 남한강 두 갈래의 물이 만나 서로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 드넓은 바다로 향하듯 남과 북도 이렇게 어우러지길 바라는 심정은 비단 나만 일까. 6·25전쟁이 멎고 1953년 7월 정전 협정이 조인된 뒤 69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아픔과 생채기로 얼룩진 분단시대가 청산되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정착되는 통일 한국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안고 서울역을 떠나 민통선 내 남측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평화열차 DMZ(비무장지대) 트레인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상태다. 경의선의 허리가 잘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역이 된 도라산역은 대륙으로 나아가려는 철도의 꿈이 잠시 멈춘 곳이다. 하늘은 여전히 남과 북 구분 없이 이어져 있건만 철마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곳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알려주는 뼈아픈 상징이 됐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시대적·민족적인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통일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시대가 완수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8000만 겨레가 염원하는 통일 이야말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착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은 자명하다.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이 합쳐지는 한반도의 젓줄 한강은 우리 민족의 다가올 미래를 예표하는 것이리라. 통일의 꿈이 눈앞에 펼쳐지고 ‘두물머리 아리랑’을 마음껏 부를 날을 기대하며, 길지 않았던 나만의 여행을 조용히 끝마쳤다. 🌈

“양수리 두한강물 얼크러 설크러 졌는데 /

남한강물 북한강물 얼싸안고 노래하네 아리랑 아리랑...”

양평관리역 : 경의중앙선 양수역-지평역 총 9개역 총괄 관리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5호의 정답은 '남북경제협력지도사'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기획-2022년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의 길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남북교류는 그 어떤 정부와 달리 남북화해를 위한 소통에서 귀중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여겨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미묘해왔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화해의 근간을 마련한 초석에 균형성, 현실성, 실용성을 더욱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 최지하 서울 강동구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민족화해>에서 '함께'라는 단어에 담긴 용기와 기적 그리고 행복을 배웁니다. 우리 함께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지도사들의 노력과 활동을 보니 감동입니다. 남북경협이 누군가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삶과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 번 열정과 뜨거움으로 일어서주시길 바랍니다. + 양서정 경남 진주시



이슈 앤 포커스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이 됩니다. 지피지기야 말로 한중이 상생 협력하는 기본 철학이며, 한반도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 포용의 따뜻한 동지가 되는 올바른 외교 방향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남북화해협력의 가두보를 확보하고 한중 상생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경기 의정부시



평화를 만나는 기행

따스한 봄날 접경지 철원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철원이 과거 번창하여 강원도 내 최고 도시로, 우시장, 양잠, 곡식 등을 생산했지만 전쟁과 심리전을 거치면서 그 번영과 거대 철원평야의 영화가 신기루가 되어버렸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질곡의 철원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나라 정기와 얼이 가득한 철원을 거닐며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 윤정 전남 순천시



통일웹툰

우리의 식목일처럼 북한도 '식수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반도의 숲을 가꾸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묘목을 북한에 보내고 양묘장도 짓고 병충해를 막는 약제와 장비를 제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빨리 통일의 그날이 되어 북한 산야로 걸으며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느끼고 싶습니다. + 정민준 전남 여수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이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소통과 평화 통일미래 꿈나무들의 탐구발표와 도전의 장!

2022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



접수기간 | 2022년 6월 2일(목)~6월 24일(금)까지

주제

북한·남북관계 분단 및 평화통일과 관련 있는 모든 주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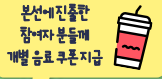
구글폼을 통한 탐구보고서 제출 (5매 이내, PDF 제출)

참가대상

전국 초등학교(4~6학년), 중·고등학생
(팀구성 : 2~5인 / 부문별 학교·학년 혼합 가능)

시상내역

- 대상(부문별 1팀) | 통일부장관상·민화협상임의장상 /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부문별 1팀) | 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민화협상임의장상 / 상금 20만원
(* 협의 중) (* 협의 중)
- 우수상(부문별 3팀) | 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민화협상임의장상 / 상금 10만원
(* 협의 중) (* 협의 중)
- 장려상(부문별 7팀) | 민화협 상임의장상 / 상금 5만원
- 채인지메이커상(1팀) | 민화협 상임의장상 / 상금 10만원



주요일정

- 본선 출전팀 발표
2022년 7월 5일(화) 예정
- 통일공감 코칭 (* 온라인)
2022년 7월 6일(수)~21일(목) / 해당 일자 중 팀별 2회 진행
(* 팀별 일정 조율 예정)
- 본선대회 (* 온라인)
2022년 7월 23일(토)~7월 31일(일) 중 1일 진행
(세부 참여 일정은 본선 진출팀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결선 및 박람회 (* 오프라인)
2022년 8월 20일(토) 13:00



대화가페 링크



신청서 링크

참여문의

- 어썸스쿨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010-9640-0780
- ✉ tongilgonggam@gmail.com
- 📍 네이버카페 '2022년 청소년통일공감탐구대회' 질문게시판

